



우측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안산톡톡'을 볼 수 있습니다. ※ 안산톡톡(talktalk) : 톡톡(talktalk) 튀는 이야기(talk)가 가득한 톡톡(talktalk)한 소식지!



일동조각공원

02 특집

가을 속으로 풍덩! 11월에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 3선

황토십리길, 백운공원 둘레길, 노적봉 둘레길... 청명한 가을의 날씨를 즐기며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는 둘레길 산책. 우리 동네에 이런 길이 있었나? 걷기 좋은 안산의 둘레길을 현장감 넘치게 소개한다.

09 인터뷰

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13대 총장

대한민국 문화·예술계 인재 양성의 중심. 개교 57주년을 맞은 서울예대에 13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남식 총장을 만나 그의 포부와 안산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듣는다.

06 안산을 빛낸 체육인

정보경 안산시청 유도부 선수

2016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그리고 올해 10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유도 여자부 52kg급 금메달을 획득하며 전국체전 6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정보경 선수가 전하는 이야기.

12-13 기획

안산시 특성화고등학교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고 진학을 고민하는 중학생·학부모를 위해 안산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6개교를 소개한다. 실무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가진 각 학교를 주목하자.



11월에
걷기 좋은
안산의 트레킹 3선

황토십리길
백운공원 둘레길
노적봉 둘레길

가을의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1월을 앞두고 안산시를 대표하는 둘레길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설악산과 내장산 등 명산이 부럽지 않을 안산의 걷기 좋은 트레킹 코스를 소개한다. 이미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명소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도 알고 보면 쓸쓸한 즐거움을 준다.

📍 **황토십리길**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황토십리길은 2020년에 개통예정인 수인선(수원~인천) 상부 공원과 나란히 새롭게 둘레길이 추가되면서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다. 황토십리길은 세 갈래로 이뤄졌다. 그 중 가운데 길에는 아자매트가 깔려 있어 어르신들도 편하게 걸을 수 있다. 사동 시곡중학교 앞에 들어서고 있는 가칭 사리역사 공사로 일부 구간이 폐쇄돼 둘레길 길이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안산소방서 상록수출동대에서 시곡중학교 건너편 구간을 왕복하는 코스는 이곳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둘레길 트레킹 코스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황토십리길을 트레킹하면서 만났던 많은 시민 중 A씨(50, 본오동)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곳을 걷는데 4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걷고 나면 땀이 흐르면서 상쾌하다”고 말했다.

시곡중학교 앞에서 안산소방서 상록수출동대까지는 왕복 1.5km 정도지만 한대앞역에서 사리역까지는 왕복 4km 정도에 이른다. 따라서 시간은 짧게는 20분 길게는 40분 정도 소요된다.

어울림공원으로 이름 붙여진 수인선 상부 공원을 걷는 묘미 또한 본오동과 사동 시민들을 기쁘게 한다. 어울림공원에는 구절초와 코스모스가 절정으로 가을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 **백운공원 둘레길**

백운공원 둘레길을 즐기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연수원 맞은편 언덕길로 올라가면 나오는 주차장에 주차하고 걷는 코스가 안성맞춤이다. 산 정상에는 팔각정이 있는데, 지금은 공사 중으로 이곳에 오를 수 없지만 팔각정 정상을 오르다 보면 멀리 호텔 스퀘어, 신안산대, 신도시 아파트단지, 초지역사 및 원곡동 신규아파트단지 등이 한 눈에 들어온다. 백운공원 둘레길을 걷다보면 저 멀리 화랑유원지와 와~스타디움이 보이며 장관을 이룬다.

이곳을 걷다보면 둔덕자향쉼터, 역새바람언덕쉼터, 자귀나무쉼터 등이 시민들을 반긴다.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둘레길 코스여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코스는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 있어 호젓하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며 쉼을 얻고자 하는 시민들에게는 권하고 싶은 곳이다. 주변을 걷다보면 야생화 향기가 코를 자극하고 아기자기한 들꽃이 만발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재미도 쏠쏠하다. 둘레길을 걷다가 팔각정에 오르기 위해서는 102개의 나무계단을 올라야 하는데 연인과 함께 가위바위보를 하며 오르는 재미는 더 없는 낭만과 추억을 선사한다. 계단이 힘든 시민은 바로 옆길에 나 있는 흙길을 걸어 오르면 된다.

코스는 짧게는 1km 길게는 3km 정도 되며, 걷는 시간은 코스에 따라 다르지만 2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된다.



📍 **노적봉 둘레길**

노적봉공원은 안산 9경 중 한 곳으로 둘레길 코스도 이미 많은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곳은 주말이면 항상 시민들로 넘쳐난다. 장미공원에는 아직도 가을장미가 향기를 내뿜으며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주말이면 가족과 연인들이 이곳을 찾으며 김밥과 과일을 들고 나온 시민들이 잔디마당에 돛자리를 깔고 안산의 가을주말을 만끽한다. 아이들은 자전거와 킥보드를 타면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노는 것으로 오랜만에 맛보는 주말의 행복을 느껴본다.

2.6km인 노적봉 둘레길 한 바퀴를 돌다보면 40~50분이 소요되며, 둘레길 정상에는 체력단련용 운동기구가 있어 운동을 즐길 수도 있고 소규모운동장에도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 등이 있어 일반시민들도 편하게 자신의 역량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노적봉 둘레길은 곳곳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있다. 노적봉 주차장에서 오르는 길을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 성포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단원미술관 등에서도 오를 수 있다. 특히 흙플러스 4층 주차장에서 노적봉으로 연결된 구름다리를 통해서도 노적봉 둘레길을 걸을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더욱이 전국 최대 규모의 인공폭포를 자랑하는 노적봉폭포를 바라보며 둘레길을 걷는 모습은 안산시민만이 가진 또 하나의 자부심이다.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갈 곳 많고
특산물
풍부한
대부도

11월 가까운 대부도에서 주말을 힐링해보자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는 도심의 복잡함을 벗어나 바닷바람과 꽃향기를 맡으며 시원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가을의 높고 푸른 하늘 밑에서 드넓게 펼쳐진 꽃과 갈대를 보며 가볍게 걸으며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자.

대부도 초입에 위치한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는 안산9경 중 한 곳인 대부해솔길 1코스에 위치해 있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다면 더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전체 면적이 축구장 100개보다 넓은 72만여㎡에 달하기 때문에 입구 주변에서 전기자전거 또는 전동바이크 등을 빌려둘러볼 수 있다.

산책길 주변에는 쉼터가 마련돼 바닷바람과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보며 휴식할 수 있다. 또 자연생태계가 숨 쉬는 생태연못과 메타세콰이어 숲길 등 아름다운 풍경이 곳곳에 조성돼 다양한 풍광을 보며 산책하기 좋다.

'모세의 기적' 느끼며 탁 트인 전경 볼 수 있는 탄도바닷길 & 누에섬

안산9경 중 4경인 탄도바닷길은 탄도항과 누에섬 사이에 있다. 하루 두 번 썰물 때 4시간씩 열리며 서해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바닷길은 1.2km 거리로 걷기 좋다. 걷다보면 바다 한 가운데 우뚝 솟은 풍력발전기 3기는 장관을 이룬다.

누에섬에 도착하면 섬 꼭대기에 누에섬 등대전망대가 있다. 2004년 4월 개관한 등대전망대는 서해안 고깃배들의 안전한 조업을 돕고, 자연학습을 겸한 어촌관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다. 등대에는 누에섬의 자연환경과 바다와 등대에 관한 전시실이 있으며, 2층에는 휴게실과 세계의 등대를 소개하는 전시실이 꾸며져있다. 3층에 오르면 탁 트인 바다전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바다 사이로 걸어보며 잠시나마 '모세의 기적'을 느껴보자. 차가운 바람이 불 수 있으니 따뜻한 외투를 챙기는 것도 잊지 말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산책로의 갈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산책로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입구

따사로운 햇볕과 바다의 영양을 머금은 대부김



영양과 향이 뛰어난 대부김은 서해안 대부도의 특산물 중 하나다. 썰물 때 햇볕을 충분히 받고, 밀물 때는 바다의 영양을 머금어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한다. 좋은 김은 조류, 수운, 염분, 적당한 일조량, 풍부한 영양염류가 양식조건인데, 대부김은 모든 것을 충족한다. 대부김의 원재료인 원초는 지주목에 매달려 서해안의 풍부한 영양과 향상 유지되는 11도 안팎의 수온에서 양식되며 최고의 품질로 거듭난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주염전 천일염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소금을 생산한 대부도 동주염전의 천일염은 세계 제일의 품질을 자랑한다. '웅기판염'을 활용해 생산하는 천일염은 웅기의 조각을 바닥을 깔아 미네랄 등 영양이 풍부하다. 특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게랑드 소금보다 칼륨, 마그네슘 함량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로 만든 대부 포도고추장



수도권 유일의 와이너리를 갖춘 대부도는 특히 포도가 유명하다.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포도로 생산하는 대부 포도고추장은 특유의 향과 맛을 자랑한다. 특히 포도의 맛과 향을 그대로 담은 포도고추장은 우리 몸에 좋은 효소가 생생하게 살아있다. 포도고추장은 고춧가루에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대부도 포도로 만든 효소와 대부도 그랑꼬또 와인을 첨가 발효시켜 제조한다.

이로운 소금 갬파리 소금



이로운 소금은 갬파리 소금을 3년간 숙성 및 탈 간수하고 800도에서 12시간 가열하고 다시 12시간 뜸 들여 총 24시간 동안 소나무로 구운 소금이다. 갬파리 소금은 대부도 웅기토판염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로, 웅기조각을 바닥에 깔아 장판염과는 차원이 다른 소금을 생산한다. 일반 소금보다 훨씬 덜 짜고 부드러운 맛을 낸다.

안산시, 국제우호협력도시 독일 아헨특구와 경제분야 협력강화 경제협력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적극적인 경제 교류협력 하겠다”



독일 아헨(Aachen)특구 대표단이 양 도시의 우호증진과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10월 14~15일 안산시를 방문했다. 아헨특구 대표단은 팀 그뤼테마이어 아헨시장과 패트릭 하스 스톨베르그시장, 로타 만케 아헨투자협회 CEO 등 14명으로 이뤄졌다.

시는 2017년 3월 아헨특구 대표단이 안산을 첫 방문한 뒤 같은 해 5월 양 도시 간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꾸준한 기업교류를 바탕으로 아헨특구와 우호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아헨시에서 양 도시 간 우호협력도시 관계 체결을 이뤄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경제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대표단과의 접견에서 “안산시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서 있다”며 “경제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문화·체육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팀 그뤼테마이어 아헨시장도 “안산시와의 우호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양 도시가 굳건한 우정 관계에서 서로 ‘원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아헨특구 대표단은 14일 안산시청 방문에 이어 다음날인 15일에는 경기테크노파크를 찾아 안산시 기업과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기관의 경제협력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했다. 스마트시티와 이모빌리티(Electronic-mobility) 분야의 혁신기술, 한독협력분야와 우수사례, 아헨시의 기업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소개와 기업들과 기술교류 네트워크가 이뤄졌다. 이어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안산시 내 전기·전자공학 연구기업 핵사휴먼케어와 미팅을 진행했다.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까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독일의 MIT라고 불리는 아헨공대와 우리 기업 간의 기술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독일을 발판으로 유럽 진출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독일 아헨특구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국경 인근에 위치했으며, 아헨시를 비롯해 알스도르프, 바스와일러, 스톨베르그, 헤르조겐라트 등 모두 9개 시로 이뤄졌으며 특구의 전체 인구는 55만여 명에 달한다. 아헨시에는 독일의 MIT라고 불리는 아헨공과대학이 위치해 있다.

◇ 문의 : 안산시 신성장전략과(031-481-2854)

안산시, 공공형 버스 8개 노선 운행 개시

시내버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안산시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운수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대중교통 취약 지역 시민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형 버스 8개 노선을 도입했다.

공공형 버스는 올해 국토교통부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에 선정돼 도입됐으며,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현 버스노선운영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의 노선 효율화와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지원한다.

시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운수종사자 부족과 운송수지 악화로 폐선·감차가 예상되는 적자노선에 공공형 버스를 도입해 복지, 교통소외지 등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등 교통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공공형 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은 ▲2번 안산역~염색단지~시화MTV ▲6번 화정동~단원구청~고잔역 ▲3번 수암동~중앙역~푸르지오6차 ▲7번 양상동~중앙역~상록구청 ▲50번 푸르지오 6차~중앙역~KTX광명역 ▲34번 운전면허시험장~선부고~안산역 ▲13번 원시역~염색단지~송산그린시티 ▲737번 방아머리~구봉도~바다향기수목원~탄도 등 총 8개 노선이며 버스 20대(중형 19·소형1)가 새롭게 투입된다.

일반 노선버스와 동일한 ‘거점운행 셔틀버스’ 방식으로 운행되며 2번 등 7개 노선 19대가 10월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대부분 순환 노선인 737번은 11월부터 운행한다. 이용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버스업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내년에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비를 계속적으로 확보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형 버스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대중교통과(031-481-2955)

지역화폐 ‘다운’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1인 구매한도 60만원으로 상향·5만원권 추가 발행 할인판매 확대 등



다운: 많을수록 따뜻할수록
소상공인, 골목경제까지 모두가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데요. 안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안산시
안산사랑상품권
10,000
안산시

안산시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안산 사랑상품권 ‘다운’의 유통을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개정된 ‘안산 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10월 2일 공포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류식 상품권 5만원권을 추가했으며, 구매금액 및 환전 한도 상향, 할인판매 확대 등 다운이 보다 활발하게 유통되도록 개선했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평상시(6%할인)와 특별혜택기간(10%할인) 구분 없이 1인당 구매한도금액 월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지류식 상품권 종류 기존 5천원권, 1만원권 2종에서 5만원권 추가 발행으로 3종으로 확대 ▲개별 가맹점 환전 한도 월 3천만 원까지 조정(월 매출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천만 원) ▲1인당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 연간 720만원(도내 최고 한도)으로 상향 등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화폐 다운으로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시민들이 더욱 편하게 다운을 사용할 수 있도록 5만원권을 추가 발행하고 구입한도도 상향 조정하니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일반발행액이 조기완판됨에 따라 1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부서 간 협치 행정을 통해 ‘다운 홈페이지’ 및 ‘가맹점 검색 지도’를 구축했다. 또 대부분도 갯벌습지보호지역 주민감시단 활동비를 다운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다운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 문의 : 안산시 상생경제과(031-481-3591)



시민과 과학의 만남, 2019 경기&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전 성황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공학대학 전공설명회 등 진행



안산시는 경기도와 공동주최로 10월19~20일 이틀 동안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서 '2019 경기&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전'을 개최해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였다.

'과학으로 함께하는 생생도시 안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과학축전은 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 상록청소년수련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Answer zone, Share zone, Vision zone, Maker zone 등 네 구역으로 구분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Answer zone은 '안산시 기업홍보&사이언스 아울렛'을 주제로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의 각종 전시·체험부스가 운영됐고, 안산 내 창업자들의 다양한 기술과 제품들을 체험하고 구입할 수 있는 마켓이 열리기도 했다.

Share zone에서는 '우리학교 과학클럽'이라는 제목으로 안산시와 경기도 내 초·중·고교의 과학 동아리 40개가 참여해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더불어 상록청소년수련관과 경기과학멘토사업단은 부스를 통해 전시·체험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Vision zone은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SW경진대회'가 진행됐고, 'tvN 어쩌다어른', '세상을 바꾸는15분' 등 TV프로그램에도 출연한 김범준 성균관대 교수의 '세상 물정의 물리학'이라는 제목의 사이언스 토크가 진행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Maker zone은 3D프린팅, 3D

펜 등 평소 경험하기 힘든 과학 장비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열려 참여한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 같은 장소에서 '창업', '노력', '성과와 실패' 등을 주제로 경험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강연과 공연이 이어져 체험과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밖에도 공과대학의 다양한 전공에 대해 청소년들이 세부적으로 체험하고 진로선택에 도움 받을 수 있는 '공학대학 전공설명회', 무대에서 진행된 '사이언스 매직쇼', 유튜브 '코코보라의 과학문화공연' 등이 진행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축전이었다.

행사장에서 만난 A군(18, 고잔동)은 "평소 과학에 관심이 있었지만 체험할 기회가 없었는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가 많아서 흥미로웠고, 특히 고등학생들에게는 전공 설명회가 많은 관심을 끌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문의 : 안산시 산업진흥과(031-481-3517)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안산에서 열린 K-뷰티페스티벌, 시민에게 '신선한 충격' 선사 10월20일 안산문화광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져

제1회 안산 K-뷰티페스티벌이 10월20일 안산문화광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행사는 안산시가 주최하고 신안산대학교가 주관으로 진행됐다. 안산문화광장에 마련된 33개 부스에는 다양한 뷰티 행사가 시민과 함께 체험의 장으로 진행돼 더욱 뜻깊었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오전 11시부터 몰리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다양한 부스에서 뷰티체험을 하고 거리퍼포먼스를 즐겼다. 행사의 꽃이었던 뷰티 페스티벌 전시팀의 맹활약 속에 뷰티 쇼가 펼쳐졌다. 한국미용장협회(팀리더 이숙희)와 안산미용협회(팀리더 황영은)의 수고로 아름다운 뷰티 쇼는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뷰티쇼에는 ABA연합회(팀리더 진혜성), 휴 뷰티연구소(팀리더 김린정), 백옥수 한복(팀리더 백옥수), 대한

미용사 중앙회 경기도지회(팀리더 구자경)가 참여했다. 축하 공연도 이날 행사를 빛냈다. 복면가왕 도로시 모니카, 부타운 보이즈, 부활 10대보컬 김동명 등이 안산시민과 함께 열창과 춤을 선보였다. 페스티벌을 찾은 젊은 층과 가족들은 시원한 가을 밤하늘에서 축제를 즐겼다.

시민 이근수(성포동) 씨는 "개막식을 통해 안산에서도 이와 같은 뷰티 컬렉션을 직접 볼 수 있다는데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며 "오랜만에 안산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행복한 순간이었다"며 즐거워했다.

낮에는 가족들이 머리를 손질하고 얼굴에 화장도 해보고 가발도 손질해보는 체험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직접 머리를 손질하고 있던 한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며 싱글벙글했고 "엄마! 엄마도 한 번 해보세요, 아주 좋아요"라고 말하자, 엄마는 "엄마는 안 해도 되니까, 우리 딸 예쁘게 열심히 하세요"라고 답하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화목한 가족애가 물씬 풍겨나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 깊어가는 안산의 모습이었다.

◇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069)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제18회 전국테마음식경연대회... 2019 안산음식문화제로 확대 올림픽기념관과 안산호수공원에서 11월8일~9일 이틀간 진행

안산의 외식사업 활성화와 지역특산물 발굴, 식품관련학과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해마다 열리는 '전국테마음식경연대회'가 올해부터는 '안산음식문화제'를 더해 경연대회와 체험행사를 분리, 11월8일과 9일 올림픽기념관과 안산호수공원에서 열린다.

제18회 전국테마음식경연대회는 11월8일 오전 9시 올림픽기념관에서 막을 올려, 본선진출 43개 팀이 안산시의 특산물을 주제로 다양한 테마음식을 선보이며 실력을 겨룬다. 이날 대회는 식품영양학 전공 교수 외 8인의 심사위원이 외식부 11개 팀과 일반·학(원)생부 32개 팀의 요리의 독창성과

조리의 과학성, 재료손질과 처리과정의 위생성을 평가해 특별로 각각 금상·은상·동상·장려상 25개 팀과 대상 1팀을 뽑아 시상하고, 식품안전에 공이 있는 식품제조업체 7곳과 외식업체 2곳, 식품관련 학교 1곳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한다.

11월9일 안산호수공원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안산음식문화제의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열린다. 성호이익 선생의 삼두밥상과 해산물을 이용한 어부밥상이 안산시향토개발음식전에서 선보이고, 소금과 장류 등 안산의 특산물 홍보관이 운영된다. 순 우리 밀로 만드는 칼국수 나눔과 국산 농산물 판



별 체험부스, 식품안전 O·X 퀴즈 외에 국산 농산물 판별 체험, 천연비누 만들기, 캘리그라피, 네일 아트, 버블·마술 공연까지 주말 온 가족이 참여해 즐길만한 다양한 부스가 운영된다.

◇ 문의 : 안산시 위생정책과(031-481-2233)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INTERVIEW

도전하고 경쟁하며 2020년 도쿄올림픽 준비하겠습니다!

정보경(안산시청) 선수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유도 여자부 52kg급 금메달리스트)



대한민국 스포츠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올해 10월 열렸다. 전국체전 유도 여자부 52kg급 결승에서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의 맞대결

이 펼쳐져 관심을 모았다.

48kg급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정보경(안산시청) 선수가 체급을 변경해 52kg급 은메달리스트인 박다솔(순천시청) 선수에 도전한 것이다. 연장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가 이어졌고, 결국 정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48kg급에서 지난해까지 5년 연속 금메달을 따냈던 정보경 선수는 처음 치른 52kg급 경기에서도 정상에 올라 전국체전 6회 연속 금메달 획득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한 것이다.

정보경 선수는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자 전국체전 최강자로 거듭나기에 앞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이후 20년 만에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획득한 역사를 쓰기도 했다.

대한민국 여자 유도의 핵심 선수이자 안산시청 소속으로 안산을 빛낸 정보경 선수를 만나 이야기 나눴다.

Q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산시청 소속 52kg 체급 현역 유도 선수다. 운동하는 것을 좋아했고 중학교 때 처음 선생님의 권유로 유도부에 들어가 선수생활을 시작했다. 경기대학교에 진학한 후 2011년 처음 국가대표로 입촌했고 안산시청 소속이 되면서 국가대표로도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가 됐다.

전국에 여자 실업유도팀이 10여개 정도 있는데 그 중 안산시청 팀은 성적을 잘 내고 있는 명문팀이다. 2014년에 2016년 아시안게임 앞두고 입단 제의를 받아 안산시청 유도부의 일원이 됐다.

Q 100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축하드리며 소감

작년까지는 48kg급에서 쪽 대회에 출전하다가 올해부터 체급을 올렸고 중요한 첫 대회였다. 100회 전국체육대회라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체급변경

후 첫 도전이었는데 특히나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 의미가 더 컸다. 전 체급에서는 우승을 지키는 입장이라 시합 하나하나가 오히려 더 부담이 크고 잘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이 더 많이 됐다. 그러다보니 가끔 후배들에게 잡히는 경우에는 정말 속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도전하는 입장이다 보니 부담도 덜해 더 큰 어려움에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

Q 전국체전 유도 6년 연속 금메달로 들었는데 이런 큰 기록을 유지해온 비결이 있다면?

안산시청 팀과 잘 맞는 것 같다.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항상 도움이 크게 된다. 이 팀에 들어오면서부터 우승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 이전 체급에서는 경량 체급인데도 국내 선수들 중 힘과 스피드에서 앞서서 5년간 잘 버텨온 것 같다. 올해 우승은 앞서 말 한대로 도전자의 입장이다 보니 기존 선수들보다 마음 편하게 도전했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 체급 조절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그동안 체중 조절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 어떤 부분보다 더 힘든 부분이었다. 너무 힘들어서 체급을 올린 것이기도 하다. 운동선수들은 보통 체급이 달라지면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다행히 첫 대회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Q 전국체전에 앞서 올림픽 은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기록도 보유중인데.

2016년은 나에게 첫 올림픽 도전이었다. 심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였다. 같은 체급에 라이벌 구도의 후배 선수가 있어 매 경기 치열하게 경쟁했다.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할 수 있었고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한 체급에 한 명만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치열했다. 최종적으로 선발되지 못한 동료들이 더 힘들 수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 잘 도와줘 큰 힘이 됐다. 올림픽 당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여자 유도에서는 내가 아닌 다른 체급 선수들이 주목받고 있었고, 특히 남자 유도는 인지도가 있어 운동하고 있으면 카메라가 따라 오곤 했는데 상대적으로 유명하지 않던 나는 아무 신경 쓸 것 없이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은메달을 따

냈고 많이 노력했기에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다음을 준비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낼 수 있었다.

Q 선수로서 단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일단 랭킹을 유지해야 한다. 국제대회에 지속적으로 출전해 포인트를 쌓아야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꾸준히 운동하고 시합에 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대회로는 2020년 도쿄올림픽이 있다. 지난 대회 성적을 보자면 희망이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체급을 바꿨고 그 자리에 강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경쟁자들과 옆치락뒤치락 하면서 더 열심히 운동해야 한다.

Q 장기적으로 선수 생활 이후까지 바라보는 목표가 있다면.

일단 내년 올림픽 출전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그 외에는 그 동안 해보고 싶었던 영어공부를 하고 싶다. 그리고 공부 외에 개인적인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행을 꼭 다녀보고 싶다. 선수 생활을 마치고 난 후를 생각해 본다면 보통은 지도자 일을 하거나 체육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다. 현재 개인적으로 석사과정으로 공부 중인데 꼭 박사 과정을 마쳐서 이후에 유도 분야 대학교수로 일하고 싶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Q 안산특독 독자들, 안산 시민여러분께 한 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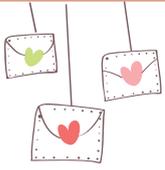
지난 올림픽 이후 안산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종종 알아봐주시고 해서 충분히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과 같은 큰 대회에서만 반짝 시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항상 훈련도 하고 시합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도팀 뿐만 아니라 안산시청에 다양한 운동부들이 있고 또 선수들이 있고 여러 대회에 그 선수들이 나오고 있으니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한다. 또 많은 분들이 유도를 위험한 운동이라고 오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으며, 실제 경험해보면 조금 더 유도를 알 수 있고 관심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팀에서도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시에서 진행하는 마라톤 대회 등 행사에 참여해 팀을 알리고 소통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2019 타쉬켄트 그랑프리유도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정보경 선수

따뜻한 글



손편지에 정을 담았습니다

햇살 좋은 어느 가을날, 낯선 할머니에게 안부를 물으며 말을 건넸다. 할머니에 대한 정보는 주소와 나이 그리고 이름이 전부였다. 나이는 87세, 주소는 〇〇요양원이었다. 답장 없는 편지를 쓴다는 게 어렵고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수신자가 손편지를 받고자 하는 희망자였기에 용기를 냈다. 지난 5년 동안 이어 온 따뜻한 온기를 담은 '정 담은 손편지' 나눔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015년 9월 안산시평생학습관과 안산우체국 그리고 안산여성문학회가 모여 따뜻한 일을 도모했다. 장애인 가정과 몸이 불편한 어르신 28명을 선정하여 한 달에 한 번 마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기간은 1년을 약속했다. 화신 없는 일방적인 편지를 쓴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설레는 일이기도 했다. 28명에서 시작한 손편지는 2019년 현재 70여 명에게 안부를 전하는 소중한 일이 됐다. 대상은 한글을 배우는 어르신과 다문화 여성 그리고 안산에 있는 기관 두 곳이다. 발신자는 안산여성문학회 회원뿐 아니라 교사, 공무원, 작가 그리고 안산시민이 동참하고 있다.

국내에서 홀로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 중, 잘 보관돼 있는 손편지를 본 유족이 캐나다에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었다. 병상에 누워 있는 아들이 매달 손편지를 기다린다는 어머니의 전화가 있었고, 고향을 떠나 한국에서 생활하는 다문화 여성의 뼈뼌 글씨

의 답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찡하기도 했었다. 또 한글을 배우는 어르신이 보내 온 한 편의 시는 우리에게 비타민이 되었다.

2019년 10월 우리에게 새로운 명단이 전해졌다. 곧 제5기가 시작된다. 어떤 짝꿍을 만나게 될지 궁금하다. 지속적으로 수신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편지가 이어질 것이다.

SNS로 빠르게 소식을 전하는 시대, 손편지는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여유이다. 너른 들판에 핀 코스모스이다. 군락을 이루었을 때 더 멋진 코스모스처럼 함께 하는 손편지나 높은 사랑의 노크이다. 오늘도 우린 핑크빛 편지지를 들고 수신자의 환한 얼굴을 상상하며 편지를 쓴다.

P.S / 손편지 나눔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010-9153-305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원(안산여성문학회)



고통의 역사를 넘어, '고향마을'에서 사할린 동포를 만나다!

노인의 날 기념 '사할린 고향마을 한마당 잔치' 개최...영주 귀국· 고향마을 정착 20년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39번지에 위치한 '고향마을' 아파트. 이곳은 국내에서 러시아 사할린 동포가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다. 8개 동 아파트에는 오로지 사할린 동포만 살고 있다.

일제강점기였던 1930~1940년대 일본은 조선인들을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해 탄광, 군수공장 등에서 노예처럼 부렸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은 조선인들을 남겨둔 채 사할린을 떠났고, 남은 4만3천여 명의 조선인은 난민 신세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왔다. 2000년 2월 이후 귀국한 사할린 동포 1세대는 평균 연령 7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고향땅을 밟게 됐다. 고향마을은 당시 귀국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안산시에 조성된 영

구 임대 아파트다.

고향마을은 지난 1989년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적십자가 결성한 '사할린 거주 한국인 재회 지원 공동사업체'에 의해 건립됐으며, 우리 정부가 땅을 제공하고 일본 적십자사가 비용을 대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일본이 사할린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지원한 국내 유일의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집단 거주지로 의미가 있기도 하다.

그리고 고향마을에는 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가 설치돼 관련 지원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상주하며 동포들의 생활을 돕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강당 등 부대 시설도 갖춰져 있다. 또 거주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만든 넓은 복도는 휠체어 이동이 편하고, 곳곳에는 손잡이가 설치돼 편의를 돕고 있다. 또한 우리말이 서툰 동포들을 위해 모든 공식 사항은 러시아어로 함께 표기돼 있는 등 동포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인다.

10월25일에는 2019년 노인의 날을 기념해 '사할린동포 고향마을 한마당 경로잔치'가 고향마을 복지관에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 귀국하고 고향마을 아파트에 정착한지 20년이 되는 해로 의미가 더 크다.

양운회 고향마을 노인회장은 "어느새 고향마을이 20년을 맞았고, 60대에 영주 귀국한 우리가 벌써 80~90대의 고령자가 됐다"며 "이렇게 오늘날까지 우리 고향마을을 사랑해주고 건강하게 살아주시는 주민 모두에게 감사하며, 고향마을과 함께 해주는 지원사업소 모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노인복지과(031-481-2877) /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안산드림TV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안산드림TV 운영현황

매 체 명: 안산시 소셜방송 안산드림TV

운 영 기 간: 2016. 5월부터

운 영 채 널: 안산드림TV연계매체(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네이버블로그)

주요콘텐츠: 시 주요행사 현장중계, 시청뉴스, 정책소개, 화제의 인물 등 안산시의 다양한 이야기

기간 _ 2019.10.20.(월)~11.11.(월)



경기도 최초 '아트마켓' 안산국제아트페어 개최

유명 초대작가 30명과 외국작가 작품 감상...그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ART ANSAN 제16회 안산국제아트페어가 10월4일부터 16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렸다. 1부와 2부로 나눠 열린 안산국제아트페어는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4년 최초로 시작됐으며 올해 16회를 맞은 경기도 최대의 미술시장이다. 안산국제아트페어는 예술시장 활성화와 예술의 자생성 확대를 위한 안산시 미술 분야의 특성화된 축제로 세계현대미술작가의 작품과 전국 유명작가 작품을 무료로 전시하며 다양한 그림을 시민들이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번 전시회는 단원의 도시, 미술문화의 도시를 지향한다는 취지로 전국의 유명작가의 작품 초대전과 일본, 중국, 유럽, 미국의 현대작가 작품전시와 다양한 장르의 작품전시를 통해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작품전시를 기획했다.

특히 2부 전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청년작가 특별전을 개최했으며 전국의 현대미술작가의 개인부스전과 유명작가 초대전 등으로 1부와 2부

를 합쳐 전시가 2주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또 청년작가들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애니메이션 작품과 웹툰 작품을 형상화한 그림들을 대거 선보여 '작품이 젊어졌다'는 평가로 희망을 보여줬다는 찬사를 받았다.

전시회를 관람하고 나온 임양준(성포동) 씨는 "이렇게 좋은 전시를, 그것도 무료로 관람하고 나니 가을 하늘 만큼이나 맑고 뿌듯하다"며 "좋은 책 한권을 숙독해서 읽은 기분이며, 늦었지만 나만을 위한 취미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안산이 이렇게 문화예술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산국제아트페어는 매년 행사가 거듭 될수록 국제적인 행사로 성장하고 있으며, 더불어 다양한 나라의 작가들과 엄정하게 선정된 국내 유명 작가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안산시가 문화, 예술의 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문의 : 안산국제아트페어(031-485-0488)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세월호 엄마들의 그리움을 담다, 뜨개전시 '번짐' 개최

희생자 엄마 16명 · 시민 500여 명 참여



세월호 참사가 2014년 4월16일 벌어진 이후, 2천일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현재,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안산에서는 치유공간 이웃과 416재단이 함께 한 '세월호 엄마들과 시민의 그리움을 담은 뜨개전시' '번짐'이 10월5일부터 안산 화랑유원지 소공원앞 저수지 산책로에서 개최됐다.

세월호 유가족 엄마 16명과 전국의 국민 5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추진된 야외 뜨개전시 '번짐'은 희생된 아이들의 추억이 남아있는 안산 화랑유원지 내 120여 그루의 나무를 뜨개 옷으로 감싸 전시하는 방식으로 13일까지 진행됐다.

소공원앞에 전시된 '소원' 섹션은 유가족 엄마들의 작품이 14그루의 소나무를 감싸고 있다. 전시 관계자는 "엄마

들의 오랜 소원인 언젠가 아이를 만나는 것, 만나게 된다면 가만히 아이를 안아주고 손을 꼭 잡아주고 싶은 소박한 소원을 담은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저수지 산책로 103그루의 뽕나무를 감싸고 있는 뜨개 작품들이 있는 '잘 지내니?' 섹션은 희생된 아이들을 그리워하고 기억하는 시민들의 정성이 담긴 작품들이 전시돼 산책하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뜨개전시 '번짐'을 주최한 치유공간 이웃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심리 치유와 생활 지원을 위해 2014년 9월 안산시 단원구에 문을 연 민간 차원의 치유공동체다. 그동안 치유방송, 생일모임, 마사지, 뜨개수업, 한방치료 등 유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2014년부터 5년이 넘는 현재까지 매주 수요일에 세월호 엄마들과 함께 뜨개수업을 해 왔다고 한다.

전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떠난 아이들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 뜨개 나무 옷을 유가족 엄마들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었다"며 "뜨개 작품이 화랑유원지의 나무들을 따뜻하게 감싸듯 아픈 우리 모두의 마음 또한 따스해지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전하기도 했다.

◇ 문의 : 치유공간 이웃(031-403-0416)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소식通 NEWS

장애인의 전통보장구 급속충전기 이용하세요



안산시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장애인 전통보장구 급속충전기 13대를 추가 설치했다. 시는 이를 통해 전통휠체어나 전통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장소는 ▲상록구청 ▲일동·본오1동·와동·초지동·신길동행정복지센터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상록체육관 ▲감골시민홀 ▲선부다목적체육관 ▲부곡·선부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13개소다. 앞서 안산시는 단원구청 및 장애인복지관 등 9곳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했으며, 추가설치로 모두 22개소로 확대됐다.

급속충전기는 전통휠체어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고 1시간 연결 시 배터리 용량의 80~90%가 충전돼 갑작스럽게 보장구가 방전되더라도 신속히 재충전할 수 있다.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해 비장애인도 언제든지 쓸 수 있다.

◇ 문의 : 안산시 장애인복지과(031-481-2204)

성포동, 옥외부스형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안산시 상록구는 10월25일부터 성포동 스타프라자 앞 광장에 옥외부스형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운영한다. 성포동 임시청사 이전으로 시민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차량 통행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스타프라자 앞 광장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연중 365일 24시간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자동차등록 원부, 병적증명서, 수급자·장애인증명서, 농지원부,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증명서, 성적(졸업)증명서 등 다양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문의 : 상록구 민원봉사과(031-481-5134)

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신임 총장 “서울예대는 안산의 자랑거리”

개교 57주년 서울예대 처음으로 외부인사 총장 초빙 이 총장 “학교 구성원 의견 담은 비전 2025 선포 계획”

이 총장 “공연예술, 미디어 창작 분야 최고 명문대학으로 유지·발전할 것…안산의 명소되도록 노력할 것”

대한민국 영화의 흥행을 이끈 감독과 배우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은 어디일까? 국내 곳곳에 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이 많지만, 그중 단연은 안산에 있는 서울예술대학교다. 지난해 언론사가 지난 10년간 한국영화 흥행작 100편을 꼽아 감독·주연·조연 343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였다. 시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배우를 예로 든다면 대표적으로 ‘국제시장’의 황정민, ‘극한직업’의 류승룡, ‘봉오동 전투’의 유해진 등을 내세울 수 있다. 영화, 드라마 등 문화예술 분야에 활약 중인 서울예대 졸업생이 1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개교 57주년을 맞은 올해는 창학 처음으로 총장추천위원회를 열고 외부 총장을 초빙해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주인공은 지난 9월2일 제13대 서울예대 총장 취임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는 이남식 신임 총장이다. 이 신임 총장은 “서울예대가 안산의 자랑거리라고 자부한다”며 취임 일성을 밝히며, 안산을 기점으로 서울예대가 한 걸음 더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남식 신임 총장과와의 일문일답이다.

Q. 설립 이후 처음으로 외부에서 초빙된 총장이다. 앞으로의 포부는?

개교 57주년을 맞은 서울예대는 공연·예술·문예·디자인·음악·커뮤니케이션·창작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대학이다. 이런 대학에 출중하고 뛰어난 구성원들과 함께 하게 돼 영광이고 기쁜 마음이 크다. 앞서 자연과학, 인류공학 등 다양한 분야 여러 대학에서 근무한 역량을 바탕으로 서울예대가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인재 양성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디자인 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고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서울예대에도 접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Q. 관심 있는 교육 분야와 교육철학에 대해 말해 달라.

교육의 목표가 ‘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철학은 현재, 미래 언제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분야보다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등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대학 교육의 핵심이다. 뉴미디어가 등장하는 등 시대가 변하면서 교육철학이 바뀔 수 있지만, 시대 흐름에 맞는 분위기에 교육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예대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STEAM교육(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 코딩 교육 등 새로운 기술이 학생들에게 잘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유튜브를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1인 미디어와 VR, AR, 드론 등 과학 발전으로 새로 등장하는 플랫폼에 대해 서울예대는 실험적인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Q. 서울예대가 안산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의미에 대해 말해 달라.

서울예대 졸업생 1천여 명은 현재 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펼치며 활동하고 있다. 국내외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졸업생 모두 서울예대를 넘어 안산의 자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서울예대 강의를 맡고 있는 교수진도 유명 배우들이 포진해있다. 서울예대가 안산의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대학 주변이 문화거리가 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다양한 공연장, 전시장, 극장 등이 조성된다면 안산시민이 언제든지 찾아 문화를 함께 향유하면 안산시민과 학생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안산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도 있을 것이다. 서울예대가 안산의 자랑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Q. 서울예대에 당면한 현안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운영할 것인가?

새로 취임한 뒤 대학 교직원과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의 뜻을 담은 ‘비전 2025’를 선포할 계획이다. 서울예대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도 반영한 ‘비전 2025’는 서울예대의 새로운 100년 비전을 담으며 구성원들의 의견으로 결정된다. 명실공히 공연예술, 미디어 창작 분야에서 최고의 명문대학으로서의 위치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미래의 비전, 사명, 목표, 전략을 새롭게 만들 것이다. 또한 국내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세계로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창학이념 중 한 문구 ‘우리 민족의 예술혼과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에 널리 재현하며’에 나오는 우리 민족의 예술혼에 과학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예술을 창조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 진출을 진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해외와의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며, 학생들이 할리우드, 뉴욕 브로드웨이 등 곳곳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

Q. 안산과의 인연은 언제부터? 안산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10여 년 전부터 안산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온누리 M센터에 봉사활동을 하러 자주 왔다. 이곳은 온누리교회가 안산 이주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해 2005년 설립한 외국인 지원센터다.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사는 안산에 큰 감명을 받고 시간이 날 때마다 방문해 봉사활동을 도왔다. 안산은 국내 어디보다 특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다양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다양한 민족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본다. 단원 김홍도를 대표로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도시다. 이러한 문화도시에 서울예대가 있는 것은 안산시 문화 증진 측면에서 굉장한 도움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랑과 지원이 늘길 바란다. 특히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문화예술 공연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대가를 받고 그만큼 철저히 연습 등을 통해 무대를 보여준다면 더 뛰어난 문화예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자생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본다. 반대로 무료 공연이 사라진다면 그만큼 인기 없는 공연은 도태될 것이고 문화예술인 역시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얻기 위해 ‘니즈’를 공유하며 더욱 발전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 문의 : 서울예술대학교(031-412-7187)
글 = 김지호 공보관 전문위원
사진 = 서울예술대학교 제공

INTERVIEW



이남식 신임 총장은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대학원에서 산업공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쳤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인간공학연구실에서 책임연구원을 맡았으며, 1997년부터 2003년까지는 국제디자인대학원대학교(IDAS) 부총장으로 있었다. 이어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제9~11대 전주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aSSIST) 총장을,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계원예술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서울예대 총장직을 맡게 됐다.



2019년도 시정소식지 「안산톡톡」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 기간 : 2019.11.1.~30. (30일 간)
◆ 참여방법
① 우편(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우15335)) 해당 페이지를 오려서 11월30일까지 후납우편으로 보내주세요.
② 우측 QR코드 스캔 후 모바일 설문조사 참여
③ 온라인(e-안산톡톡 홈페이지 : ansantalktalk.net / 안산시청 홈페이지)

본 설문은 2020년도 안산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앞서 보다 알차고 유익한 시정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안산시 시정소식지 향후 개선 방향의 기초자료로 시민만족도 및 문제점 파악에 있어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약속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50분을 추첨하여 기프티콘(1만1천원 상당)을 발송해 드립니다. 설문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의 소리에 한층 더 귀 기울이는 안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사기관 : 안산시 공보관(홍보기획팀)
◇ 연락처 : 031-481-2042

아래 질문에 귀하의 의견을 표기해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귀하의 거주 지역은?
① 상록구 ② 단원구 ③ 기타지역
4. 가장 효과적인 시정홍보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시정소식지 및 시정소식 e안산톡톡(인터넷포털)
② 안산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 ③ 시정방송 '안산드림TV' 및 유튜브
④ 안산시 공식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⑤ 현수막 · 전광판 ⑥ 간행물 ⑦ 게시판 ⑧ 기타()

5. 귀하는 현재 '안산톡톡'을 구독하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설문5-1. (②아니다 선택 시 17번 문항으로 이동하셔서 응답해 주세요)

6. 귀하가 시정소식지 '안산톡톡'을 접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관공서(행정복지센터 등) ② 시 홈페이지 ③ 지정비치함(신문계시대)
④ 주위 사람 권유 ⑤ 기타()

7. '안산톡톡' 구독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개별우편 ② 시 홈페이지 ③ 직접수령(관공서, 다중집합장소)

설문7-1. 직접 수령할 때 원하는 장소가 있으시면 기재해 주세요.

설문7-2. 일반주택단지 중 지정비치함이 설치되면 좋을 장소를 기재해주세요.
(예. 00할인마트, 00경로당, 00 민간단체, 00커피숍 등)

8. 평소 안산시의 정책 등 시정소식을 주로 무엇을 통해 접하십니까?
① 시정소식지 및 시정소식 e안산톡톡(인터넷포털)
② 안산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 ③ 시정방송 '안산드림TV' 및 유튜브
④ 안산시 공식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⑤ TV방송매체 및 신문 ⑥ 현수막 · 전광판 ⑦ 간행물 ⑧ 게시판 ⑨ 기타()

9. 시정소식을 접하는 매체로서 소식지가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10. 시정소식지의 기사 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중복가능)
① 특집 ② 안산소식 ③ 안산, 안산인 ④ 교육·문화·체육 ⑤ 주요행사 및 정책사업
⑥ 건강 ⑦ 산하기관소식 ⑧ 의회소식 ⑨ 동네소식 ⑩ 참여마당(독자투고)

11. 소식지에서 더욱 비중 있게 다뤄주었으면 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① 주요시책 ② 경제·일자리 ③ 안전 ④ 교육 ⑤ 복지
⑥ 문화·예술 ⑦ 축제·행사 ⑧ 동네소식 ⑨ 기타()

12. 시정소식지에 대한 내용 만족도를 체크해주세요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설문12-1. 시정소식지에 불만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 현재 시정 소식지 디자인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설문13-1. 디자인 불만족 시 소식지의 디자인 방향을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14. 시정소식지 '안산톡톡'의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발행주기 ② 발송방법 ③ 편집과 구성내용 ④ 홍보 ⑤ 크기 및 형태
⑥ 기타()

15. 시정소식지 정기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홍보방안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16. '안산톡톡'에 건의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작성해 주세요.

5번 항목에서 (②아니다)를 선택하신 분께서는 아래 17번 문항부터 응답해주세요.

17. 평소 안산시의 정책 등 시정소식을 주로 무엇을 통해 접하십니까?
① 안산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 ② 시정방송 '안산드림TV' 및 유튜브
③ 안산시 공식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④ TV방송매체 및 신문
⑤ 현수막·전광판 ⑥ 간행물 ⑦ 게시판 ⑧ 기타()

18. 귀하께서는 시정소식지 '안산톡톡'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어떤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홍보 ② 지역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 홍보
③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활용한 홍보 ④ 기타(지역 통장을 활용한 홍보 등)

19. 시정소식지 '안산톡톡'의 정기구독 신청을 원하실 경우 성함과 주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월 1회 무료 발송)

※ 상품 발송을 위해 응답자 성명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응답자 성명 / 연락처(휴대폰번호)



안산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차단 · 불법유통 식품 근절 ‘총력’ 상황종료 시까지 불법 수입식품 판매행위 특별단속 실시



안산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과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해 보따리상 등을 통해 불법으로 외국 식료품

판매점으로 들어오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필요 없는 면적 300㎡ 미만의 외국 식료품 판매점으로, 시는 9월 25일부터 담당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투입해 주 3회 불시 방문을 원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며, 돼지고기가 함유된 무신고(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을 적발하면 압류·수거해 바이러스 검사의뢰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해 무신고(무표시),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및 축산물 판매행위, 유

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진열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격하게 처벌된다.

시는 앞서 지난 5월부터 외국 식료품 판매점 65개소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점검, 홍보활동을 벌여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소 11개소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매주 합동 단속반을 투입해 불법 수입식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위생정책과(031-481-3272)

가을철 열성질환 주의 당부

야외활동 시 설치류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주의

안산시는 가을철 산행 등 야외활동 증가로 쯤쯤가무시증 등 가을철 열성질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민들의 감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예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진드기 활동이 왕성한 시기로 10~11월은 가을철 열성질환의 80%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이며, 야외에서 풀숲과 접촉 가능한 모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가을철 열성질환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쯤쯤가무시증과 등줄쥐 등 설치류 매개 감염병인 신증후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등이 있다.

쯤쯤가무시증의 주 증상은 발열, 근육통, 발진, 가피 등이

며, 신증후군출혈열은 발열, 출혈, 신장 기능이상 등이다. 렙토스피라증 또한 발열, 두통, 황달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이들 질환은 병원체와 감염경로는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발병 초기에는 심한 감기몸살처럼 고열과 두통, 근육통 증상을 보이고 치료시기가 늦어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가을철 열성질환은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어 진드기, 등줄쥐 등 매개체에 물리지 않도록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야외 활동 및 농작업 시 긴팔, 긴옷, 장갑, 장화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집 주변 휴경기 제초, 주거지 농번, 농로 등 진드기 서식지 환경을 정비하고, 야외 활동 후 2~3주 이내 발열, 전신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99) 단원보건소(031-481-6363)

알아두면 좋은 보건소 소식! 건강 알림 마당

깨우세요! 우리안의 금연본능

- ◇ 대상 : 흡연자(청소년 포함) 누구나
- ◇ 내용 : 9차 이상 금연상담서비스 및 CO측정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등) 및 단계별 행동강화물품 제공 6개월 금연 성공시 5만원 상당의 상품 증정
- ◇ 이용시간 : 평일 -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야간 - 매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7시~9시(단원보건소)
주말 -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9시~12시(상록수보건소)
- ◇ 이용금액 : 무료
- ◇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899, 5921), 단원보건소(031-481-6761~2)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 운동교육 대상자 모집

- ◇ 교육내용 : 골다공증 제대로 알기, 올바른 체중부하 운동방법, 낙상 예방교육
- ◇ 교육대상 : 안산시민(골감소증/골다공증/근육 부족자) 30명(선착순 모집)
- ◇ 교육일시 : 11월4일~12월27일(매주 월, 수/오후1시~2시)
- ◇ 교육장소 및 문의 : 단원보건소 2층 운동처방실(031-481-6753~4)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 실시

◇ 접종대상 및 기간

구분	접종 기간	접종 기관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19.10.15.(화) ~ '20.4.30.(목)
임신부	-	'19.10.15.(화) ~ '20.4.30.(목)
어르신	만75세 이상	'19.10.15.(화) ~ '19.11.22.(금)
	만65세 이상	'19.10.22.(화) ~ '19.11.22.(금)
취약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만50세~64세) 장애인(13세 이상)	'19.10.22.(화) ~ '19.11.22.(금)
기타	만65세 미만 만성질환자 (당뇨, 호흡기, 심혈관질환 등 소견서 지참)	'19.10.22.(화) ~ 소진시

※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 참고

◇ 접종장소 : 안산시 인플루엔자 지정 의료기관 232개소 (단원구 127개소, 상록구 105개소)

◇ 접종비용 : 무료

◇ 준비물 : 신분증, 예방접종 안내 우편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만 해당)

◇ 문의처 : 상록수보건소(031-481-5892) 단원보건소(031-481-6471)

안산시

특성화 교육의 요람

다양한 교육과정에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가득한 특성화고등학교



여전히 대학진학이 우선시 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는 전문기술을 가르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정부가 올 초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직업계고 취업률을 높이는 데 노력하는 가운데 안산시 특성화고등학교 6개교는 다양한 커리큘럼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내세워 앞장서고 있다. 안산시 관내 특성화고교를 알아보자!

'취업·진학 역량 강화 교육의 메카'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국비고)의 역사는 1975년 안산상업고등학교부터 시작됐다. 1997년 안산경영정보고등학교로 한 차례 교명을 바꿨다가 2012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고로 지정되면서 2013년 지금의 교명이 됐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안산 상업계 특성화고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부로부터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 대상학교'로 3년 연속 선정돼 7억2천만 원을 지원받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국비고는 ▲경영사무과 ▲쇼핑물제작과 ▲비즈니스콘텐츠과 ▲비즈니스중국어과 ▲비즈니스일본어과 ▲미용과 ▲부사관과 ▲보건간호과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학과를 8개를 운영하며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국

가의 주민이 정착한 안산시의 특성을 살려 외국어 말하기 대회, 다문화 어울림 캠프 등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대의 직업인을 양성하고 있다.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국비고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산업체 취업설명회를 방문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취업설명회도 따로 운영한다.

인근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산·관·학이 함께하는 취업지도협의회도 운영하며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다.

학교의 이런 노력에 힘입어 졸업생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을 비롯해 금융권, 관광업, 군부사관 등 다양



한 분야에 취업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으며, 동문회 장학금을 통해 후배들을 지원하고 있다.

- ◆ 주소 : 상록구 수인로 1981(장상동)
- ◇ 문의 :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교무실(031-483-6184)

'전국 NO.1 특성화고 발돋움' 안산공업고등학교



1994년 개교한 안산공업고등학교(안산공고)는 '베를린자, 튼튼하자, 앞을 보자'라는 교훈을 내걸고 다양한 공업교육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전국경기기능대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경기도 1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내세워 최우수기관·우수기

관 표창을 잇달아 받기도 했다. 기술 분야에서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안산공고는 우수기관으로 여럿 선정되면서 전국 NO.1 특성화고로 발돋움하고 있다.

안산공고는 ▲기계과 ▲전기과 ▲전자과 ▲화학공업과 ▲디자인과 ▲컴퓨터과 6개 학과를 운영 중이며, '고졸성공 신화의 꿈을 실현하는 행복프로그램'을 목표로 미래형 인재를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직업체험교실프로그램'을 통해 입학한 1학년을 대상으로는 '융·복합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본인의 전공은 물론 타 학과 전공을 이수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산학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특색사업구현을 위해 도입한 SMART 프로그램은 안산공고의 특성을 나타낸다. 창의력과 인성을 지닌 기술명장 양성

을 목표로 운영 중인 이 프로그램은 ▲Special ▲Master ▲Active ▲Renewable ▲Technical의 앞글자를 따서 붙여졌다.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여러 분야의 전공을 이수하는 융합 기술 교육을 통한 전문 기술인 양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 특성화로 예의바른 기술인 육성이 핵심이다. 안산공고는 특히 기술인 양성을 위해 기술 외적인 분야도 특색 있게 교육하고 있다. 인성교육 특성화를 통한 예의바른 기술인 육성을 목표로 예절교육과 선फल달기 운동, 대화와 소통을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 ◆ 주소 : 상록구 안산공로 51(부곡동)
- ◇ 문의 : 안산공업고등학교 교무실(031-482-8955)



‘전국 유일의 모바일 특성화교육 전문’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는 ‘생각은 자유롭게, 행동은 책임 있게, 꿈은 세계를 향해, For the Global Dream!’라는 교훈으로 전국 유일의 모바일 특성화고등학교로 자리매김했다. 학교의 역사는 안산 특성화고교 중 가장 오래됐다.

1967년 반월상업고등학교로 개교한 이래 2009년 모바일 시대에 맞춰 현재의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모바일고)로 교명을 바꿨다.

모바일고는 창의성과 책임감을 지닌 개성 넘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모바일비즈니스과 ▲모바일콘텐츠과 ▲모바일그래픽디자인과 등 3개의 학과를 운영 중이다. 모바일 산업 인재 양성을 기초로 특성화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 모바일고는 명품 직업 교육 실현을 위해 VIP(Vision-Interaction-Profession)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소기업 취업 중심의 창의적 인재양성에 나서고 있다. VIP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이해 연수(Vision) ▲산학맞춤반·1팀 1프로젝트 운영(Interaction) ▲글로벌 리더 체험연수(Profession)로 이뤄졌다. 교내 학습을 넘어 실제 산업현장 체험과 프로젝트 참여, 해외 연수 등을 통해 실무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있다. 모바일고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올해로 3년째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로 선정돼 신기술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 ◆ 주소 : 상록구 남산평길 35(팔곡일동)
- ◇ 문의 :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교무실(031-400-6780)

‘IT분야 전문가를 꿈꾼다’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IT분야와 경영, 콘텐츠 분야를 특화한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디미고)는 2002년 3월 개교했다. 2009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최우수 사학기관에 선정되는 등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디미고는 ‘꿈, 열정, 나눔’을 교훈으로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다. 2007~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비즈쿨 선도학교로 지정된 디미고는 올해 비즈쿨 특화학교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다.

디미고는 ▲상업계열 e-비즈니스(경영·경제·회계) 디지털콘텐츠과(디자인·문화콘텐츠) ▲공업계열 웹프로그래밍(소프트웨어) 해킹방어과(해킹·보안 및 정보통신) 등 4개

학과로 나뉘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한다.

3년의 재학 동안 디미고에서는 94단위의 국·영·수 등 일반교과와 86단위의 학과별 전문교과를 학습한다. 일반교과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성적분석프로그램을 통한 취약점을 학습할 수 있는 베네듀, 기숙사 생활 등을 통해 높은 학업 수준을 유지한다. 졸업생들은 국가공무원과 공공기관, IT전문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다. 전교생은 노트북을 활용한 IT교육을 받으며 영상 촬영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도 갖추고 있다. 학생들은 전공 교과, 자격증, 교내·외 대회 입상실적 등을 합산해 졸업시



IT종합소양인증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그랜드마스터·마스터·익스퍼트·스탠다드로 나누어 표창하는 특징도 있다.

- ◆ 주소 : 단원구 사세충열로 94(와동)
- ◇ 문의 :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교무실(031-363-7800)

‘바로 사회에 진출해 꿈을 펼친다’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관광·경영 분야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는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경일고)는 1991년 개교한 특성화고등학교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7년 연속 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부터 매년 2억여 원씩 지원을 받아 산학맞춤반 6개 과정(세무회

계·외식서비스·무역관세·품질관리·경영지원·사무행정)를 운영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경기도형 도제학교’에 선정돼 특급호텔과 연계한 실습교육도 진행 중이다.

경일고는 현재 ▲관광운항과 ▲관광레저과 ▲금융정보과 ▲재무관리과 ▲세무회계과 등 5개 학과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나, 내년부터 공공행정과를 신설한다. 졸업 후 바로 실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본 이론부터 실습까지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내년에 신설되는 공공행정과는 지방분권 및 행정복합도시 발전 등에 발맞춘 것으로, 국가직공무원부터 군경, 행정직 공무원 등 다양한 진출을 돕

는다.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강화반도 운영 중이다. 금융과정, 세무회계관련, 한국사, NCS능력시험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많은 졸업생이 관련 분야로 취업하는 쾌거도 이뤄냈다. 특히 올 2월 졸업생들은 60%가 취업을 통해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등 맞춤형 취업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방학 동안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요령 등 실질적인 취업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학생마다 부족한 이력 등을 채울 수 있도록 담당 교사가 전담해 지도에 나서고 있다.

- ◆ 주소 : 단원구 석수로 131(선부동)
- ◇ 문의 : 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 교무실(031-363-1400)

‘다양한 체험으로 문화·예술 전문인 양성’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문화·예술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인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디문고)는 1993년 안산여자상업고등학교로 시작, 2011년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며 지금의 교명으로 바뀌었다. 디문고는 문화·예술 산업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재능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산업현장의 빠른 기술변화를 학교교육에 접목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편, 실무중심 직업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디문고는 ▲미디어콘텐츠 ▲스마트경영 ▲공연콘텐츠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등 5개 학과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스마트경영·미디어콘텐츠과는 경기도형 도제학교로 선정돼 운영 중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현

장의 기술변화 대응을 위해 학교에서는 이론교육과 기초실습을, 기업에서 심화실습을 연계해 실시한다. 학교에선 교사가, 기업에선 숙련근로자가 기업현장교사로 지정돼 학생을 가르친다. 산업 현장과 교육과정을 연계함으로써 학교와 기업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교육모델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공 교육뿐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며 취업의 꿈을 키우기도 한다. 현재 운영 중인 60개 동아리 중 30개는 학생 주도의 자율 동아리가 있으며, 나머지 30개는 진로와 연계된 동아리다. 로봇&프로그래밍, 금융·경제, 뮤지컬 등 다양하다. 이렇듯 디문고에서는



개인 취미면 취미, 진로면 진로, 고등학교 3년 동안 전문적인 직무 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

- ◆ 주소 : 상록구 각곡로 87(본오동)
- ◇ 문의 :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교무실(031-400-3116)

청년창업의 꿈

청년의 꿈, 땀, 그리고 땀

청년의 '꿈' 정해진 길을 걷기보다, 스스로 새로운 길이 되고자 하는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땀' 척박한 창업환경 속에서도 무한한 열정으로 성공창업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들의 땀을 이해하고 함께합니다. 청년의 '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꺼지지 않는 뜨거운 열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유니크하게 입을 수 있는 스포츠웨어 '자니크' 입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땀복 제트번 펀딩 진행



안산에서 개교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본기를 제대로 갖춘 도전의식과 창의정신이 넘치는 청년 CEO를 길러내고 있는 곳이다. 성공을 향한 청년의 꿈,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청년의 땀, 세계로 향하는 청년의 땀을 실현하고 있는 청년 CEO를 소개한다.

안산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해 있는 안흥두 대표는 남녀노소 누구나 유니크하게 입을 수 있는 스포츠웨어를 만들기 위해 '자니크'를 설립하고 현재 안산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해 있다. 자니크의 창업 아이템은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체중 감량용 땀복이다.

태권도 선수 출신인 안 대표는 2014년 볼리비아에서 태권도 코치로 활동하며, 태권도 중추국인 한국이 세계 태권도들로부터 기억에 남는 태권도 브랜드가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한국에 있는 제품도 다른 나라 선수들은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중에서 땀복이 가장 눈에 띄었다고 한다. 운동하는 선수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체중 감량용 땀복을 외국 선수들은 알지 못한 채 비닐 우비를 사용하고 있어서 사업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한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한 안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브랜드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2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며 국내 태권도 시장과 영업에 대해 배운 안 대표는 2016년 7월 자니크를 창업. 체중 감량을 위한 땀복 '번슈트' 개발을 시작했다. 올 9월 청년창업사관학교 9기로 입교한 후 기존 번슈트의 고도화 작업을 시작해 현재 3가지 버전 개발에

성공했다. 올해 말 첫째 버전 번슈트 '제트번'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장성을 검증한 후,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안 대표는 향후 올림픽에서도 자니크를 내걸 수 있는 스포츠 브랜드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품인 번슈트가

체중 감량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다이어트를 희망하는 일반인도 입을 수 있는 '스포어트룩(스포츠와 다이어트의 합성어)'이 된다면 국내를 대표하는 스포츠 브랜드로도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디자인의 번슈트를 개발하고 반집업 형태의 바람막이와 요가복 형태의 감량 웨어도 함께 출시할 예정이다.

일반 트레이닝복을 입고 운동을 하면 외부 온도가 34.6도로 측정되는 반면에 자니크의 땀복 번슈트는 36.6도의 열을 내어 땀 배출 양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자체 개발한 기능성 원단을 통해 고탄력 스트레치와 함께 외부의 추위와 비, 바람 등을 막아 내부 보호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 문의 : 안흥두 대표(010-9773-8018) / 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땀복 '번슈트'

안산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토론회 개최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반복 아파트 40%, 경비노동자 고용불안 심각



안산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산시 아파트 10곳 중 4곳의 경비 노동자들은 3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비정규센터)는 10월2일 안산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비정규센터는 2016년부터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의거해 고령 취약계층인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는 4년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노동자들의 마지막 일자리인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근무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의 보고에 따르면 안산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평균 연령은 68.3세이며 평균 근속 기간은 5.8년, 한 아파트 근속 기간은 2.6년으로 경비노동자 상당수가 이직을 통해 아파트 단지를 이동하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정순 정책연구위원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고용불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기 위해 무급 휴게시간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 본

연의 업무인 경비·방범 업무 외에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택배 관리 등 부가업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점, 입주민에 의한 비인격적 대우 등을 주요한 문제로 꼽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원의 업무 범위 명확화, 감시 단속적 근로 승인 절차 개선, 휴게시간 규제, 아파트 공동체 강화, 아파트 종사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안산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비롯한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주기적인 노동조건 실태조사와 모니터링, 경비노동자 노동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우수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해결방도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해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경비노동자 A씨는 "경비업무 외에도 많은 작업들이 이뤄지지만, 작업할 때 쓰는 작업용 장갑도 충분히 지원되지 않아 직접 사서 사용할 때가 많다"며 "청소 미화원들도 청소에 필요한 약품을 직접 사서 사용하는 곳들이 많더라. 일할 때 쓰는 물품들이라도 제대로 지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11월25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및 활동 보고회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 문의 :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031-487-4870)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정년 없이 꾸준한 업무의뢰...“도배 일은 정년 없이 일할 수 있어” 우연한 기회에 접한 도배기능사... 보람도 크고 수입도 적지 않아



올 2월부터 안산시가 운영하는 여성비전센터를 통해 도배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장봉진(46·일동) 씨는 매주 화·수요일 4시간씩 실기교육을 받고 산업인력관리공단 도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자격증은 도배 일에 꼭 필

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형건설사 도배관련 직종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장 씨는 취득한 자격증으로 업무의뢰를 받고 있고, 독거어르신이나 도배가 필요한 저소득층 세대에 재능기부 봉사활동에도 나선다.

장봉진 씨가 도배 일을 접하게 된 건 우연한 기회였다. 원래는 식당을 하는 가족을 도우려고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러 여성비전센터에 왔었다. 카페창업 붐으로 바리스타 교육 수요는 넘쳐나고 일자리는 없어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도배였는데 결과적으로 잘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장 씨는 “도배 일을 해보니까 얻는 보람이 무척 큼니다. 도배를 끝내고 깨끗해진 집을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며 “몸이 힘들어서 그렇지 도배 기능사 하루 일당도 적지 않습니다. 기술자가 23만원, 보조기술자가 17만원으로 꾸준히 일만 주어진다면 수입이 꽤 된다”고 말했다.

장봉진 씨가 도배 일을 처음 수주한 건 교육 받은 지 3개월째 되던 지난 5월이었다. 함께 교육 받은 동기생 4명과 팀을 이뤄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을 시공했는데 오전 9시에 시작한 일이 다음날 새벽 3시에 끝났다. 처음이라 긴장되고 잘하려는 마음, 부족한 실력이 많은 시간을 걸리게 했다. 지금은 여느 직장인들과 비슷하게 9시에 일을 시작해 오후 6시간에 마친다. 일을 맡긴 지물포 사장은 첫 솜씨였지만 깔끔한 일처리에 만족하고 이후로도 다세대·다가구 일을 맡겨왔다. 그렇게 알음알음 들어온 의뢰를 따져보니 지금까지 한 달 평균 8건 정도 시공했다.

장봉진 씨는 회사 사무직 근무와 영업, 자영업 운영 경력이 있지만 기술을 갖고 고요한 일을 하는 도배 일이 매력적이라고 했다. 젊은층은 말할 것도 없고 5060 신중년 세대도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다고 했다.

도배 기능사직은 건설 경기 영향에 있어, 신규 아파트가 대량 건설될 때 기능사 수요도 늘어난다. 반대로 건설 붐이 가라앉으면 도배 기능사 수요도 덩달아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전·월세 시장에서 2년마다 새 주인을 맞이하는 기존 주택은 입주자가 바뀔 때마다 도배·장판은 기본으로 꾸준한 수요는 있게 된다. 또 눈썰미 있고 미적 감각이 있다면 집 꾸미기를 즐겨 하는 요즘 시대에 틈새시장을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다.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단원구청·단원보건소 청사 제2주차장 조성



단원구는 단원구청·단원보건소 청사 야외 임시주차장을 제2주차장으로 새롭게 조성했다. 기존 주차장은 226면 규모로 구청 직원 300여명과 방문 민원인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구는 기존 석분 포장돼 있던 바닥면을 골재포설 및 아스콘포장으로 교체하고 보안 및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높이제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개선작업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주차공간 216면을 추가 조성했으며 기존 2.3m 주차 구획 폭을 2.6m로 확장해 차량사고 및 문콕 방지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했다. 이로써 단원구 주차장은 총 442면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단원구청과 단원보건소는 그동안 청사 내 주차장에 주차해 오던 관용차량 83대를 제2주차장으로 이동하고 방문 민원인이 더욱 편리하게 구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문의 : 단원구 행정지원과(031-481-6138)

안산에서 즐기는 세계 음식



분짜(Bún Chả)



박항서 감독 “베트남 음식 중 분짜가 제일 좋아”

작년부터 외식시장에서는 ‘에스닉푸드(Ethnic Food)’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있다. 민족을 뜻하는 에스닉(Ethnic)과 음식(Food)이 결합한 단어로 사람들이 이국적인 맛과 분위기를 즐기게 되면서 외식업계에서 뜨거운 반응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에스닉푸드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가 히스패닉 음식, 두 번째가 아시안과 인도 음식, 세 번째가 아랍, 마지막으로 동유럽 음식이다. 이 중, 아시안 음식이 편리성과 건강 모두를 잡는 콘셉트로 빠른 속도의 확산을 보이고 있다.

안산다문화음식거리에는 많은 외국인과 더불어 세계음식점이 몰려있다. 또 수요미식회 등 방송을 통해 맛집으로 소개된 음식점도 많다.

이곳에 방문하기 위해 국내 여행객이 늘어 한국인 입맛에도 맞추도록 노력하는 추세다. 이런 변화 때문에 안산은 국내 에스닉푸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이국적인 맛과 분위기를 즐기고 싶거나 외식창업에 생각이 있다면 안산다문화음식거리 방문은 필수적이다.

이번에 소개할 세계음식은 사람들에게 ‘알고 있는 베트남 음식 세 가지를 대답하라’고 하면 쌀국수, 월남쌈과 함

께 언급될 것 같은 ‘분짜’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먹고, 박항서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베트남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분짜는 베트남어로 고기 쌀국수라는 뜻이며, 분(bun)은 얇은 쌀국수를 뜻하고 짜(cha)는 다지거나 얇게 썰어 구운 고기를 뜻한다. 쌀국수와 숯불에 구워낸 돼지고기, 생채소와 새콤달콤하게 맛을 낸 차가운 생선을 발효시켜 만든 베트남 조미료에 물을 희석한 국물(소스)에 적셔 먹는 음식으로 일본의 소바와 먹는 방법이 비슷하다.

분짜는 베트남 북부 지역 중 하노이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남부에는 분짜와 비슷한 분땃느엉이라는 음식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베트남 전역의 노점이나 간이 음식점에서도 분짜는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대중적인 음식이다.

분짜의 맛을 결정짓는 세 가지는 고기, 국물, 야채이다. 분짜를 만드는 방법은 좋은 고기를 숯불에 굽고, 신선한 야채를 여러 종류 준비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국물을 만들어야 한다. 국물의 재료는 물 1컵, 피쉬소스 1큰술, 설탕 2큰술, 식초 1큰술, 레몬즙 1/2큰술, 다진 청양고추 1/2큰술이며, 섞으면 끝나는 간단한 요리다.

인차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경기창작센터, 2019 창작페스티벌 개최

오픈스튜디오, 기획전, 심포지엄, 공연&파티 등 다양한 행사 가득한 예술 축제



‘유령 걸음’ 순환하는 밤 전시회 11월30일까지...

‘회귀 본능’ 전시는 내년 1월31일까지

대부도에 있는 경기창작센터는 입주작가들의 작업실과 작업 결과물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오픈스튜디오 행사 ‘2019 경기창작센터 창작페스티벌’을 10월25~27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창작페스티벌이 끝난 뒤에도 올해 입주한 작가 30인과 해외교환 입주작가 2인의 오픈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한 기획전 ‘유령 걸음’, ‘순환하는 밤’, ‘회귀 본능’ 전시가 이어지면서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월30일까지 열리는 ‘유령 걸음’은 작가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장소에 관해 지리적 또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술적 관심으로 발전시키거나, 장소가 촉발하는 관심과 감각을 바탕으로 우리의 풍경을 살피는 주제를 담았다.

‘순환하는 밤’은 미스터리한 사건, 이미지, 이야기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입주작가 8인의 기획전으로 11월30일까지 열린다. 드로잉, 페인팅, 설치, 영상 등의 서로 다른 방법

론으로 ‘미스터리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내년 1월31일까지 열리는 ‘회귀 본능’은 창의력이 가장 극명하게 발휘되는 ‘예술’을 매개로 문화예술적 감성과 창의적 사고 자극을 위한 경기창작센터 창의예술학교 사업의 교육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입주작가 11인의 전시다.

심포지엄, 문화예술전문가와의 토의 라운드 테이블 마련

이번 창작페스티벌에서는 ‘AI시대 예술의 주체와 창작센터의 역할’에 관해 유원준 영남대 교수와 프랑스 HIVE 레지던시의 티핀 피투아제(Tiphaine Pitoiset)가 참여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또한 ‘예술가의 창작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레지던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국내외 문화예술전문가와 토의하는 라운드 테이블도 진행됐다.

개막일을 비롯한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관계자와 방문객들 간 교류의 장을 위해 DJ 파티와 야외공연도 열렸다. 음악 공연에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추구하는 그룹 L.F.O와 DJ Firedrill, 예술가 이윤기가 참여했으며, 야외에서 팔사 까리오가의 보사노바의 향연이 펼쳐져 큰 인기를 모았다. 또한, 시를 통한 영감으로 음료를 혼합해 건네는 BAR도 야외 공연 중 함께 진행됐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창작페스티벌은 방문객, 문화예술 관계자, 지역민, 예술가들이 함께 즐기며 교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경기창작센터는 국내외 예술가들의 창작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아트레지던시로서 동시대적인 이슈와 예술 동향을 반영하는 전시와 예술가 지원 프로젝트, 국내외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 문의 : 경기창작센터(032-890-4825) /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단원에서 270년, 미래를-잇다’, 제21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

‘연대기적 거북’ 시리즈로 김수연 작가 대상 수상

단원에서 270년,
미래를 - 잇다



단원미술관
1관, 2관

제21회
2019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공모전

2019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이 11월10일까지 단원미술관 1, 2관에서 열린다.

‘단원에서 270년, 미래를-잇다’는 제목으로 선정작가 10명과 공모전 참여 작가 포함 총 20명의 작가 작품을 볼 수 있다.

이번 공모전 대상에 선정된 김수연 작가(본명 김효진, 48)의 대표작은 ‘ChronoTortoise (연대기적 거북) I + II’로 본인의 ‘연대기적 거북’ 시리즈 중 하나다. 우수상에 선정된 쉰지(본명 지순정, 37)씨의 작품은 형광 안료를 이용한 페인팅 기법으로 회화가 가진 한계성에 대해 물을 담은 독특한 표현방식으로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올해 21회를 맞는 단원미술제는 안산시가 주최하고 안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표 미술공모전이다. 2015년부터 특정 작품에

대한 단편적 심사방식을 지양하고, 작가적 역량을 두루 갖춘 유망한 작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작가공모제로 운영하고 있다.

심사는 1차 포트폴리오, 2차 인터뷰, 3차 실물 작품심사로 진행됐다. 1차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 총 269명의 응모자 중 본선 예비작가 후보 40명을 선정했다. 2차 심사에서는 작가들의 작업 의도와 작품세계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는 인터뷰 심사를 거쳐 3차 심사자 20명을 선정했다. 최종 3차 실물 작품심사를 거쳐 단원미술대상과 단원미술우수상을 포함해 10명의 선정작가를 가렸다.

단원미술제 관계자는 “김수연 작가가 대표작으로 제시한 작품은 작가의 시리즈 연작으로,

작품 속 거북은 작가 자신을 자연스럽게 대변하고 있다. 동시에 연대기적 거북은 사라졌을 시간의 흐름을 작가만의 회화적 표현으로 캔버스에 잘 녹여냈다”며 “연대기적 거북이라는 주제가 앞으로 작품 안에서 어떻게 변주되고 확장되어 이어나갈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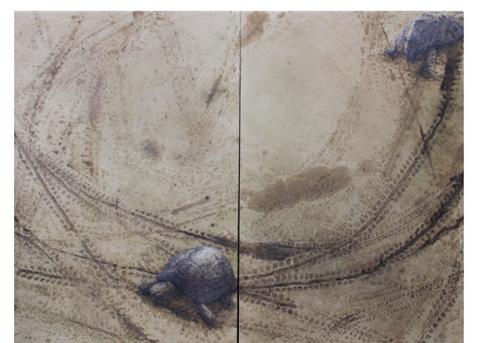
김수연 작가는 “수많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 이어온 거북의 연대기는 그 형태의 우아함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ChronoTortoise(연대기적 거북) 시리즈에서는 거북으로 대변되는 저의 연대기를 감각화와 갑골문자를 통해 재해석해 역사성과 심미성을 캔버스 위에 재현해 보고자 했다”고 작품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2019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과 함께 미래의 단원 김홍도를 발굴하는 ‘두드림(Danwon of DREAM) 어린이미술공모전’ 수상작품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연동 중앙홀에서 11월10일까지 전시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홍도의 뜰에서 놀다_PLAY IN 단원’전도 단원미술관 내 상상미술공장에서 상설 전시되고 있어 단원미술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안산시가 지난 10년간 수집한 단원 김홍도와 표암 강세황 등의 한국화 진본을 최초로 선보이는 안산시 소장 진본전 ‘단원아화檀園雅畵, 200년 만의 외출’이 단원미술관에서 12월1일까지 열린다. 12월3일부터는 영인본으로 대체해 상설로 전시된다.

*아화(雅畵을 · 우아할 아, 숭모일 화): 문인과 화가들의 사적인 모임.

◇ 문의 : 안산문화재단(031-481-0505)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ChronoTortoise(연대기적 거북) - 김수연 작

우리동네 이야기

안산시 각동을 대표하는 주민 25명과 다문화가정 주민 3명으로 꾸려진 안산시 생생마을기자단은 2019년 8월 7일을 시작으로 마을의 생생한 소식과 함께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써내려갑니다. 기사 제목 좌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기사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



우리 인간은 아프면 병원에 가요~ 지구는 아프면...



우리 인간은 아프면 “아! 아파요!”라 하며 말할 수 있고, 병원에도 갈 수 있지만, 우리 지구는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는 아프다는 표현을 폭염과 폭설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의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답니다. 지난 10월 8일 안산시새마을회관 3층 강당에서 25개 동 새마을회회장이 모여 생명살림운동 실천을 위한 새마을지도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박래현 강사님을 초빙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안산시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 중점사업인 생명살림운동 실천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컵 사용은 물론, 장바구니 사용하기, 재사용가능한 헌옷 모으기, 자원재활용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한숙희 마을기자



사이동



온 마을이 함께 꾸민 담장 도자기 벽화, 초당초등학교 가는 길



사이동은 도자기 문화체험 마을로 매년 도자기 공공미술을 제작해왔습니다. 올해는 초당초등학교 담장의 낯은 벽화를 도자기로 꾸미는데 마음을 한데 모아 지난 봄부터 시작해서 9월 27일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초등학교생, 학부모, 주민 등 1천500여 명이 흠뻑 작품을 직접 빚고 휘 갤러리가 시공에 함께 참여하며 학교 가는 길을 멋들어지게 만들어 주었어요. 매일 매일 이 길을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걷고 싶은 거리, 즐거운 학교길이 되지 않을까요?

• 김영주 마을기자



대부동



추억을 운반해요 '소금운반 궤도차' 재현

2019년 10월 8일, 대부동 어촌민속박물관에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쓰였던 동주염전 소금운반궤도차 조형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대부도 예코뮤지엄 거점센터는 동주염전이 가지는 가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키기 위해 소금운반 궤도차를 발굴하고 열차를 복원하여 상설전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통 유산을 잘 보존하여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도록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시경 마을기자



일동



포토존을 품은 일동파출소

파출소는 무언가 문제가 생겨 도움을 요청할 때만 간다?

아뇨! 일동파출소에는 아기자기하게 마련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지나가다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파출소 입구를 중심으로 담 대신에 양쪽으로 화단이 꾸며져 있고요. 수국, 장미, 채송화, 국화, 은썩 등이 서로 시차를 두고 피었다 지기를 반복합니다.

• 권성혜 마을기자



본오동



청명한 하늘 아래 열린 본오동 해란축제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씨와 따사로운 가을 햇살에 청정한 본오들의 벼들이 익어갈 즈음 자연이 함께 숨 쉬는 살기 좋고 정감 있는 으뜸마을을 꿈꾸는 본오1동에서는 해란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 축제는 지난 10월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및 해란공원에서 지역주민 1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며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습니다.

• 김형문 마을기자





'늘 푸르른(常祿)' 상록구에는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총 13개 동이 있다. 파릇파릇 우리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부곡동

청명한 가을날 행복과 안전, 나눔의 장이 된 반딧불이 마을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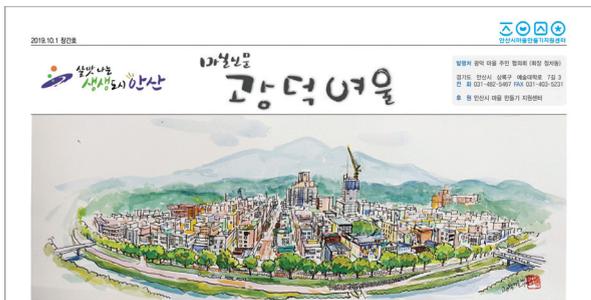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은 9월28일 반딧불이 마을축제를 열어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과 안전,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 축제는 이웃한 기업체와 주민들로부터 물품(의류, 장난감)을 기부 받아 1천~2천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축제 참가 주민들이 부담없이 즐기도록 마련한 음식과 체험 부스,

아이들을 위한 인디언 텐트, 에어베드 등 세심한 배려도 돋보였다. 안선(41·일동) 씨는 “행정복지센터 축제 현수막을 보고 이웃사촌들과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체험부스도 훌륭하고 공연도 좋았다”고 말했다. 이날 반딧불이 마을축제는 주민 한 명 한 명의 웃음과 삶이 모여 반딧불처럼 빛을 내는 마을의 희망을 담았다. 이재혁(성포고2) 군은 친구들과 부곡복지관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재활용품 부스를 운영하게 됐다. 친근한 이미지의 캐릭터를 주제로 일회용 빨대와 플라스틱 컵을 활용해 다육식물을 심는 활동이다. 이 군은 “무척 보람차고 즐겁다. 버려지는 일회용품을 활용해 화분을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재활용품을 활용해 생명을 담아내는 일이라 더 보람 있고 참여한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저희도 덩달아 즐거웠다”고 했다.

부곡 마을축제는 새로운 생각도 담아냈다. 기존에는 공연하는 사람과 축제에 오는 주민들의 자리가 지정석이었다면, 이번 축제는 자유롭게 보고 느끼고 재미를 찾는, 자기 느낌대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공연무대 앞 이곳저곳에 세워지고 놓인 인디언 텐트와 에어베드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정도선 관장은 “모두가 공연을 보는 듯이 안보는 듯이 축제의 재미를 느끼고, 또 공연하는 활동가들은 자신의 공연에 온전히 몰입하는 축제가 됐다”며 “음식도 나누고, 안 쓰고 집에 쟁여놓은 텀블러도 가져와 나눴는데 환경 지킴이 역할을 하는 복지관이 되자는 메시지가 잘 전달 된 것 같다. 안전·환경·나눔에 대한 가치 증진의 좋은 기회였다. 내년에는 또 자리 축제를 열겠다”고 했다.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월피동

주민의 소식 신는 마을신문 '광덕여울' 창간



월피동 광덕 마을주민협의회는 지난 10월1일 마을신문 '광덕여울' 창간호를 발행했다. 정착동 광덕마을주민협의회 회장을 발행인으로 한 '광덕여울'은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총 8면의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되었으며 4천 부를 인쇄하여 행정복지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등의 공공기관과 광덕초등학교, 광덕중학교 등에 비치하며 마을

축제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배부되었다. '광덕여울' 창간호에는 1면에 안산천을 앞에 둔 월피동 전경이 김용호화백의 그림으로 실려있어 월피동 마을신문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내용으로는 월피동의 큰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기사 및 마을어르신 이야기, 다문화가정 관련 기사 등을 통해 월피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았고 광덕초, 광방거리가 조성되어 있는 광덕마을 소개, 월피동의 유래와 역사 기사 등으로 월피동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광덕여울'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초·중학생 대상 사진기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마을신문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탄생되었다. 그 이후 마을신문에 대한 고민과 회의 끝에 올해 초 마을주민 대상으로 마을신문 기자를 뽑아 마을기

자 교육을 10회 실시하였다. 발행인 정착동 마을주민협의회장과 편집인 박홍래 목사 외 편집진 8명이 약 9개월의 기간 동안 교육과 기사 기획, 취재를 통해 이번 창간호가 나오게 되었다. 박홍래 편집인은 “'광덕여울'은 월피동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흐른다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다. 앞으로 '광덕여울'은 월피동을 소개하는 기사와 주민들의 이야기, 월피동 역사를 실어 지역주민들에게 정보 제공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광덕여울'은 11월에 2호가 발행되고 그 이후로는 분기별로 발행할 예정이다. ◇ 문의 : 박홍래 편집인(010-2359-5467) 백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성포동

개나리터널, 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로 각광



성포동 개나리터널이 시민친화형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있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0월6일 성포동 개나리터널 벽화그리기 사업

이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협력기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성포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성포도서관까지 약 450m에 달하는 외진 구간을 시민들이 누구나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벽화채색에 나선 것이다. 개나리터널 작업은 지역 내 시의원 및 도의원,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로 시작되었으며, 경기도시공사에서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에 후원금을 지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이번 벽화사업은 9월 18일~19일간 옹벽세척작업을 거쳐 27일과 28일 양일간 옹벽바탕 도색작업을 마쳤으며, 특히 성포동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비상과 역동, 희망과 발전, 아이

들의 꿈 등을 날아가는 종이비행기로 표현했다. 기존에 전래 동화를 표현한 타일이 있는 옹벽구간은 전통문양을 조화롭게 표현해 우리민족의 정서와 문화를 담을 예정이다. 이날 벽화그리기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텅빈 공간의 담벼락을 손질하고 새롭게 단장시켜 아름다워진 거리를 시민들이 행복해 하며 걷길 바라는 마음으로 담벼락 그리기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봄에 개나리가 노란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가 그려 놓은 그림과 어우러져 시민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준다면 그 또한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림을 그리는 내내 행복했다”며 즐거워했다.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단원구

조선시대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에는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3동,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이 있다. 따뜻한 이웃 우리동네의 소식이 궁금하다.

원곡동

제2회 원곡동 꼬치축제 성황리에 마쳐



다문화 특구에 맞는 원곡동만의 특성을 홍보하고 원곡동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2회째 맞는 '꼬치축제'가

지난 9월28일에 원곡동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열렸다. '꼬치축제'라는 이름처럼 원곡동내 상인들이 양꼬치와 사슬릭 등 꼬치음식 외에 베트남 쌀국수, 태국 팟타이 등 여러 나라의 민속음식을 가지고 나와 축제에 참가한 주민들의 발길을 끌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꼬치축제를 참여했다는 한 상인은 "작년 1회 꼬치축제 이후 장사에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내년에도 '꼬치축제'가 이어진다면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축제에 참가한 안산시민 한 분은 "원곡동에 이런 축제가 있는지 몰랐다. 평소 먹어보지 못한 양꼬치와 사슬릭을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이 있었다. 앞으로 양꼬치를 먹으러 원곡동을 찾을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공연과 작년에 비해

늘어난 체험부스도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축제 시작보다 일찍 도착한 주민들은 각 나라의 전통의상 체험과 비누 만들기, 떡만들기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올해는 '제2회 원곡동 꼬치축제'의 홍보대사로 가수 원미연씨가 위촉되어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이번 축제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외에도 다문화특구답게 대만 전통춤, 필리핀 전통춤, 평양검무, 귀환동포들의 노래 등으로 더욱 다채롭고 개성있게 진행되어 축제를 찾은 원곡동 주민과 안산시민들에게 색다른 시간을 선사했다. 앞으로 '꼬치축제'가 원곡동을 나아가 안산의 특색있는 축제로 자리매김 할 것을 기대하게 하였다.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신길동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생생마을, 신길동 낭만정원축제 성료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신길동 낭만정원 축제는 지난 9월 28일, 신길온천역 부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휴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성한 정원에서 열렸다. 작년에는 메밀꽃이 피어 있는 축제였다면 올해 코스모스가 가득 핀 정원에서 축제가 열려 가을의 정취를 더욱 살려주었다.

이번 축제에는 신길동 직능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아동밸리 '블랙&화이트팀'의 밸리댄스, 기타연주, 우쿨렐레공연, 라인댄스 발표와 주민노래자랑 뿐 아니라 인기가수 진시몬, 유현상의 흥겨운 축하공연 등의 볼거

리, 각종 체험 부스 등의 즐길거리와 먹거리 장터로 주민들의 오감을 모두 만족시켜 주었다.

이문세 생생마을축제 추진위원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낭만정원 축제를 통해 아름다운 가을의 추억을 간직하시길 바라며 신길동 주민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 지역주민의 박수를 받았다. 주민들은 "코스모스가 가득 핀 곳에서 축제를 여니 즐거움이 배가 된다"며 '낭만정원 축제'가 앞으로 신길동의 대표 축제로 거듭나길 기대했다.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와동

와동 고물상의 변신 '예술로 새롭게 태어나다'



와동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와 협력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고물상 벽화그리기 사업을 실시했다.

와동에 위치한 주민들의 휴식공간, 와동체육공원(곤충관) 사거리 대로변에 노후화된 고물상 2개소가 위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었다.

이에 지난 5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던 사안을 사업대상으로 정하고 안산시 최초로 주민참여형 고물상 벽화그리기 사업이 추진됐다.

와동 고물상 벽화그리기 사업은 와동 764-22번지에서



764-23번지로 이어지는 가로 28m, 세로 3.6m 규모의 고물상 외벽에 디자인을 입히는 작업으로 고물상 대표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또한, 지역주민 304명의 의견을 수렴해 와동의 상징인 곤충을 주제로 한 디자인이 선정됐으며, 전문가의 지도하에 벽화 그리기 작업에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

심종상 주민자치위원장은 "그동안 체육공원에 갈 때마다 흉물처럼 느껴졌던 고물상이 산뜻하게 재탄생되어 작업에 참여한 보람을 느낀다"며 "와동에는 아직도 환경개

선이 필요한 고물상이 골목 곳곳에 남아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정민 와동장은 "안산시 최초로 시도된 고물상 벽화 그리기 사업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마을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들을 배척하기보다는 주민들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 서로 포용하고 같이 사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와동행정복지센터(031-481-6731)



청년문화축제 '동고동락',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활성화 계기

안산 청년예술인의 자기주도형 협업 무대로 끼와 폭넓은 가능성 제시



개인예술가 이형우의 공연 모습

안산의 청년예술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안산문화재단이 청년문화축제 '동고동락(同苦同樂)'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2019 청년문화 축제 '동고동락'은 여러 장르의 청년 예술인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기획으로 유희 공간을 재해석하고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결과물을 안산시민에게 환원하려는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장기 프로젝트다.

참가자들은 올 4월 청년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매달 회의를 거쳐 프로젝트를 기획 및 홍보를 진행했고, 6월 사전 모임

이후 7월 공모를 통해 참여 예술가 및 단체를 선정했다. 그 결과 지난 9월28일 안산 중앙역 일대에서 다차원적인 무대가 펼쳐졌다.

Dust(studio), 곁(vase), 불편, 싸구려커피, 지옥의 왕 등 다양한 시각 작품과 안산명화극장에서 펼쳐진 김정규, 박재범, 윤희섭, 넷창인생 등의 다큐멘터리, 모노드라마 등의 영상이 상영됐다.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무대도 선보였다. '아토마당'과 '벨라르떼 컴퍼니'의 '박홍보씨 계약이라 하였거다'와 'Art Crew of JJ'와 '퓨전국악 앙상블 수'의 'Provide' 단체 공연, 박혜빈, 이한솔 등의 전통과 이주환, 이형우 등의 미술과의 콜라보레이션, 미술과 음악, 음악과 무용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다. 또한, 마카롱과 머랭쿠키, 수제 베이킹 제품, 찬이네 건어물, 캘리그래피 소품,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라라잡화, 캐릭터 소품과 문구류 등을 판매하는 아트마켓이 열려 풍성함을 더했다.

다양한 협업과정을 통해 본 프로젝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네트워크의 목적을 이뤄내면서 동시에 다양한 장르의 콜라보 등 공연, 전시, 영상 상영까지 청년예술인들의 끼와 폭넓은 가능성을 제시하는 장이 되었다. 참가자들은 10



아토마당, 벨라르떼컴퍼니 콜라보레이션 공연

월9일 성과공유회를 통해 올해 진행된 프로젝트의 장단점을 서로 공유했다.

재단 관계자는 "청년문화축제 '동고동락'을 계기로 지역의 청년문화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강화, 청년문화 활성화 및 공론화를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내년도에 더 나은 방향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안산문화재단(031-481-0522)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동산노인복지관

전국 노인일자리평가 '대상' 수상



동산노인복지관이 지난 10월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2018년도 전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대회에서 안산시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자체와 수행기관 등 1,26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분야의 전국 평가대회이다.

현재 안산시는 7개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58개 사업에 총 4,028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산노인복지관에서는 공익형 12개 사업을 총 774명의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다.

동산노인복지관에서는 가정 및 보육시설 아동돌봄 서비스인 보육돌봄비 사업, 스쿨존 지역 교통지도 및 등하교 안전지도인 스쿨존 지킴이 사업,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터 및 공터 만들기를 위한 공원 및 시설관리 사업, 독거어르신을 지원하는 노노케어 사업 등으로 어르신들의 경륜과 개개인 특성에 맞게 맞춤형 일자리로 제공하며, 어르신들 삶의 활력을 되찾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어머니는 경제활동을 하며 홀로 장애아동을 돌보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나 어르신들의 돌봄 지원으로 "지금은 일과 양육에 큰 어려움이 없고, 때론 친구 같기도 하고 친정어머니 같아 큰 의지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철현 동산노인복지관장은 "항상 야심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고 있는 안산시와 동산복지재단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사업을 더욱 확충하여 어르신들에게 일하는 즐거움과 소득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산노인복지관은 민간법인이 설립하고 지역사회 후원으로 운영되고, 정부 및 외부단체로 사업을 위탁받아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분야에서 지난 2010년과 2015년 최우수상을, 2012년에는 우수상을 받았다.

◇ 문의 : 동산노인복지관(031-400-8714)

안산시 공공 체육관 · 주차장도 다운으로 결제하세요

안산도시공사, 안산 지역화폐 '다운' 결제 도입



이제는 안산도시공사 운영 체육관, 주차장 등에서 안산사랑상품권 '다운'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안산도시공사는 10월 1일부터 공사 주요 공공 시설물 이용에 안산사랑상품권 다운 결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운영하는 136개 체육·문화시설과 주차시설에서 다운 결제가 가능해진다.

체육·문화시설로는 안산올림픽기념관, 올림픽수영장, 안산썰매장, 와~스타디움, 상록수체육관, 안산어촌민속박물관 등 70개 사업장이며, 주

차시설로는 안산세무서 뒤, 롯데백화점 앞 주차장 등 66개소이다.

공사는 내년까지 종량제봉투 구입까지 다운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안산사랑상품권 다운은 지역 내 소비를 권장하고 백화점 등 대형사업장 사용을 제한하여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안산시 지역화폐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서비스의 소비가 촉진되어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있다.

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개발사업은 물론, 체육시설·생활문화시설·공영유료주차장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안산도시공사에서 운영 사업장에 대한 다운 결제를 적극 도입함에 따라 다운의 사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공사는 지난 6월 공기업 최초로 자전거 수당제를 도입하면서 다운 상품권으로 수당 지급을 하는 등 꾸준히 다운 활성화에 힘써왔다"며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다운을 사용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사 내 다운 사용처를 더욱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운으로 결제가 가능한 안산도시공사 사업장 등 자세한 정보는 안산도시공사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문의 : 안산도시공사 주차시설팀(031-481-4969)



안산시의회, 市가 공들인 ‘반값 등록금 사업’ 짝 띄웠다 이날 조례안 포함 41건 의결 및 문화복지위원장 선거 실시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렸던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이 제25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10월25일 열린 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22일부터 이날 자정 넘어서까지 안건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시가 제출한 당초 안에서 조례명을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면서 거주기간 등 지원대상 요건을 보완하고 지원대상 확대 시행시 의회 동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지난 제25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한차례 보류되기도 했던 이 조례안은 그동안 의회의 다각적인 검토와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 노력으로 이날 최종 가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이 내년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적용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더는 혜택을 보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에 나선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은 “시가 조례 시행 시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국가 장학금 미수혜자 최소 성적 기준’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날 이 조례안을 포함해 임시회 중 3개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안건과 결의안 및 건의안 등 총 41건을 처리하고 문화복지위원장 선거를 실시했다.

정종길 문화복지위원장의 사임으로 실시된 위원장 선거에서는 한명훈 의원이 최다 표를 얻어 당선됐다. 선거 후에는 송바우나 의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의 중요성을 주제로 신상발언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본회의 안건 의결 전에는 현옥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차



원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점심시간 주차 단속 유예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규 의장은 폐회사에서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힘써준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결된 안건들이 안산의 새로운 기준이자 사회적 약속으로 제대로 작동해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우리는 모두 꽃이다’, 한국선진학교 졸업생 부모들과 간담회 가져 성인 장애인 돌봄 관련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개선 방안 논의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우리는 모두 꽃이다’ 팀이 최근 한국선진학교 졸업생 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9월2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정종길, 현옥순, 유재수, 이진분 의원과 한국선진학교 졸업생 부모 6명, 안산시 장애인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대부터 30대까지의 한국선진학교 졸업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애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등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됐다. 한국선진학교는 지역의 지적 장애 중심 특수교육기관으로, 이날 참석한 부모들이 자녀를 오랜 기간 돌봐왔던 만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평이다.

이 자리에서 부모들은 성인이 된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미흡한 현실을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주간보호시

설이 부족하고 더욱이 중증 장애인은 시설 입소가 제한적이라는 점, 사회복지사 인력이 적을 뿐만 아니라 처우도 열악해 장애인에 대한 1대 1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을 언급했다.

특히 부모들은 장애인의 경우 특정 시기가 아닌 전 생애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선진학교 학부모 모임이 장애인 평생 돌봄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인 인권미디어 협회’를 결성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들의 의견을 경청한 의원들은 장애인 부모 및 관계자들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류를 갖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구단체의 활동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장애인 복지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며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부모들은 간담회를 마친 뒤 연구단체 의원들과 함께 의회 본회의장을 둘러보며 의회에 대해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안산시의회, 露 사하공화국 고려인 청소년들과 눈높이 ‘소통’ 청소년들 만나 안산 및 의회 역할 소개

안산시의회 김동규 의장과 송바우나 의회운영위원장, 김태희 의원이 9월30일 의회를 방문한 러시아 사하공화국의 고려인 청소년들을 맞아 안산과 시의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러시아 사하(Sakha)공화국은 극동 연방지구 북부에 있는 러시아 차치 공화국으로, 고려인들을 포함해 여러 소수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회를 방문한 청소년 10여명은 사하공화국 출신의 고려인 4세대이며, 이들은 지역 노인교육단체인 ‘안산 은빛

등지’ 등의 초청으로 안산을 방문했다.

의원들은 청소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거 우리 선조들이 러시아 등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상황을 소개한 뒤, 그 후손들이 한국을 찾은 것에 깊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안산시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추진 중인 활동들과 안산의 지역적 특성을 설명하고 러시아로 돌아가서도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소년들도 안산과 시의회를 찾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



하면서 의원들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는 등 뜻깊은 한때를 보냈다.

김동규 의장은 “할아버지의 나라를 방문한 청소년들에게 안산과 의회를 알리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다양한 계층의 분들과 소통하면서 열린 의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독자 투고

어쩌면 비눗방울은

어쩌면 비눗방울은
소중히 다루어야 할 것들만 가지고 있을까
그 얇은 가슴에

... 오색 무지개 빛 햇살을
... 파르르 떠는 울림을
... 하늘로 오르는 가벼운 몸짓을
... 속 환히 보여주는 투명한 마음을
... 티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얼굴을

이제 막 태어나
조심조심 하늘로 오르는 내 사랑.
꺼져 버릴까 맘 졸이며 지켜본다

• 신옥철(단원구 선부동)



전문가 컬럼

열심히 살아온 죄

‘좀 잘하지 그랬어. 아니면 잘 태어나던가’ 영화 ‘내부자들’에서 부장검사가 역울함을 호소하는 부하 검사에게 하는 말이다. 부하검사는 검찰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업무능력도 인정받고 있었으나, 정치권력과 언론 및 재벌이 짜 놓은 함정에 빠져 곤경에 처하자 해당 정치권력 수사를 지시한 부장검 사에게 구명을 부탁하였다. 이에 부장검사는 ‘잘 태어나던가’라는 말을 던지며 구명을 거절한다.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다면 누구나 ‘잘 태어나고’ 싶을 것이다. ‘못 태어난’ 것이 내 잘못이 아니듯, ‘잘 태어난’ 것도 내 잘못이 아니다. 결국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칭찬을 듣거나 욕을 먹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이다.

‘잘 태어난’ 사람들이 대중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면, 그 중 대부분은 ‘태어난’ 자의 잘못이 아니 라 ‘태어나게 한’ 자의 잘못이다. 우리는 공정한 사회에서 정당한 경쟁을 거쳐 재산이나 지위를 차지 한 사람을 부러워하더라도 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당한 경쟁이 아니라 반칙과 특권으로 무언가 를 쟁취한 사람은 비난의 대상이 된다.

공정한 사회와 정당한 경쟁이라는 믿음이 사라져 간다. 태어난 위치가 어디든 공정하고 정당한 경 쟁을 거쳐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 자신의 노력 외에는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젊은이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절망감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내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세대와 이념을 떠나서 모두 같을 것이다. 평범한 서민이었던 우리네 부모들은 자식 잘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자식에게 ‘똑바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남들에게 피해주지 마라’ 등을 가르쳤다. 지금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그렇게 살아야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들의 믿음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자녀들 또한 착하고 열심히 살면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부모들의 말을 귓등으로 흘린다.

왜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 기득권의 대물림 과정에서 평범한 서민의 노력은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이다. 청춘이 좌절하고 분노만 남은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잘 태어난 것’ 이 아니라 ‘잘 살아온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

다. ‘잘 살아온 것’은 저마다의 가치를 얻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예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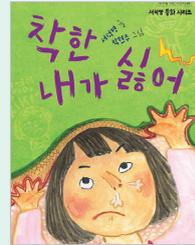
젊은이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열정으로 ‘잘 살고 싶어 하 는’ 사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어른들 의 몫이다.

• 김성천 변호사



책 읽는 안산 / 11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너와 나의 경계를 넘어』



착한 내가 싫어

저자 서석영 / 출판사 바우솔

소연이 마음속에서는 늘 두 개의 내가 싸웁니다. 착한 나와 착하지 않은 나. 착한 나는 눈치를 보며 남의 말을 잘 듣고, 착하지 않은 나 는 솔직하지요. 소연이는 남들이 착한 모습만 볼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그러나 너무 참다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화가 솟 구치지요. 소연이는 계속해서 착하지 않은 모습을 꼭꼭 숨길 수 있 을까요?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저자 황영미 / 출판사 문학동네

제9회 문학동네청소년문학상 대상 수상작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떻게 보일까,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고 또 흔들리다가 진 짜 ‘나’를 감추고 만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라 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어떻게든 원만하게 친구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어떻게든 ‘따’가 되지 않아야만 하는 청소년들에게, 진짜 나 자신을 내세우는 일은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당신과 나 사이

저자 김혜남 / 출판사 메이브

모든 문제의 90퍼센트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너무 멀어서 외롭지 않고 너무 가까워서 상처 입지 않는 거 리를 찾는 방법과 함께 자존감, 죄책감, 비교, 분노, 과거의 상처 등 내면의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통찰을 제시함으로써 해묵은 관계 를 풀어 나가는 데도 도움을 준다. 오래도록 풀지 못했던 심리적인 문제를 탐색해 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 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독자 투고

나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하나 둘 외투를 입은 사람들이 보이는 계절. 태풍도 지나가고 비도 내리다 말다를 반복하더니 금세 추워졌다.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늘어났다. 특히 비가 내리는 날이면 안산시에서 공공대여를 해주는 자전거(이하 페달로)들은 비를 흠뻑 맞으며 전부 서있다. 수입이 적은 나로서는 요긴하게 쓰이는 페달로를 쓰지 못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긴다.

첫 번째로는 교통비이다. 역시나 뜻하지 않은 지출은 식비 및 간식비의 감면과 직결된다. 매일 마시던 커피가 이틀, 사흘에 한 번꼴로 줄어들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게다가 버스 요금도 최근 한 차례 인상된 바 있어 나의 지갑사정은 삼시간에 바뀌었다.

두 번째로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생기는 불편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비가 오는 날에 한 버스에 타고 가다보니 내부가 좁지 않음에도 서로서로 불편을 겪게 된다. 굽커브라도 있는 길에서는 바로 여기가 버스 안인지 프레스 기계 안인지 알 수가 없다. 특히 비 오는 날, 다른 사람의 축축한 우산이 내 몸이나 옷 어딘가에 닿게 되는 순간엔 마

치 전율이 이는 듯 몸서리를 치게 된다. 버스가 가득 차 있을 때 백팩을 메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통행이 불편한 경우도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모두가 서로를 배려한다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한다. 자기 혼자만 바쁜 것도 아닌데 새치기를 하거나 노약자 우대석에 앉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라거나 자리에 앉기 위해 자신의 물건 등을 집어던져 다른 사람이 못 앉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가족들이 받을 대우를, 또 자신이 돌려받을 대우를 정하는 것이다. 속된 말로 호의가 반복되면 바보가 된다고들 하지만 모르는 사람끼리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다. 호의가 아닌 기분으로, 모두 바쁘고 힘든 출근길에 얼굴 붉히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끝으로 대중교통에 지친 사람들이라면 저렴하고 경제적인 페달로를 강력추천하며 글을 맺는다.

· 기성운(상록구 월피동)



독자 투고

재능기부의 기쁨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소유에서 공유의 시대로 변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문득 어릴 때 재능 기부의 혜택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사골의 작은 교회에 다니던 나는 어느 날 탁구선수였던 읍내의 어느 형으로부터 탁구를 배우게 되었다. 그 형은 탁구 선수여서 바쁜 생활의 연속이었지만 매주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우리 꼬마들에게 탁구를 무료로 가르쳐 주었다. 교회에서 탁구를 치는 즐거움에 교회를 더 가고 싶어졌다. 성인이 되어 녹스 실력을 다시 닦기 위해 성인 탁구부에 가입해 개인 레슨을 받으려고 하니 금액이 상당했다. 지금 와 생각해보니 그 형의 배려에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든다.

퇴근 하는 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학원 숙제인지 영어문제집을 바쁘게 푸느라 여념이 없는 중학교 남학생을 보게 되었다. 같은 라인이라 몇 번 보긴 했던지라 인사를 건네며 문제집을 훑어 보니 대학생일 때 과외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한 문장의 숙어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얼른 힌트를 주며 가르쳐 주었다. 그러다가 주말 일요일 오후에 짬이 나서 이번 기회에 재능기부를 해 볼까 해서 그 학생의 집에 연락을 해 봤더니 내 제안에 너무 감사해했다. 과외비를 받진 않지만 대학교 때 전공이었던 영어를 재능 기부할 수 있어서 보람이 크다. 내가 가진 재능을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혜택으로 공유할 때 남을 위한 봉사는 결국 나에게 큰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낀다. 삶이 우울할 때는 남을 도우면서 남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나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된다는 어느 정신과 의사의 책의 구절을 되새겨본다.

· 서덕인(단원구 신길동)



안산시에 바란다

안산갈대습지의 명소화를 바라며



얼마 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걷고 싶은 마음에 안산갈대습지공원을 다녀왔다. 그동안 차를 타고 근처만 지나봤지, 공원에 들어간 것은 무척이나 오랜만이었다. 5~6년 전 갔을 때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던 것 같았다. 조용한 갈대소리에 산책을 나온 시민들의 웃음소리, 변함없이 있었다.

갈대습지공원은 안산시의 자랑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 같다. 도심에서 차를 타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즐기며 걷기도 좋으니 말이다. 습지 곳곳으로 잘 정비된 나무데크를 걸으며 피어있는 야생화를 보며 간만에 주말을 주말답게 보낸 느낌도 들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 함께 자주 오지 못한 것이 아쉬울 정도였다.

갈대습지공원을 나오며 문득 생각이 하나 들었다. 좀 더 높은 곳에서 갈대습지 전체를 살펴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이를 테면 가까운 시흥시에 있는 갯골생태공원처럼 말이다. 앞서 방문했던 갯골생태공원에 있던 6~7층 높이의 흔들전망대는 주변 풍경과도 어울려 좋았던 기억이 난다. 물론 갈대습지공원에도 입구 근처에 환경생태관이 있어 멀리 전망하기 좋았지만,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이 아닌, 친환경적인 전망대가 높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안산시도 랜드마크를 짓는다는 언론 보도를 본적이 있다. 그것 나름대로 중요하겠지만, 갈대습지공원에 주변과 분위기 · 환경적으로 어울리는 전망대가 하나 들어선다면 갈대습지공원을 넘어 안산시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유영주(상록구 본오동)

안산시 시정소식지는 무료 구독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독·주소변경 신청

메일 ansannews@korea.kr
전화 031-481-2042



안산시 시정소식지에서는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 개인의 연락처, 주소 및 글과 관련된 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 시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연이 채택 된 경우 소정의 원고료(5만원 이상)는 다른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독자투고 및 전문가 칼럼

주제 생활담(자유주제) 특색있는 안산시 이야기 법률상식 / 미담(칭찬) 사례

분량 A4용지 2/3 이상 · 관련 사진

나비잠

주제 생후~24개월 전후 아이를 둔 가정의 출산·육아 이야기

분량 A4용지 절반 · 아기 사진 1장

안산시에 바란다

주제 안산시가 고쳤으면 하는 불편사항 또는 도입했으면 하는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분량 A4용지 절반 · 관련 사진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PLAY

OBS 경인TV(10월 2일)
원곡동 꼬치축제

YTN 뉴스캠핑 (10월 12일)
All about 안산시

KBS(10월 13일)
영상앨범 산 - 안산시

MBC (10월 18일)
생방송 오늘저녁 - 안산시

제2회 SUFIA 안산 창업페스티벌



- ◇ 일시 : 2019.11.1.(금) 오전10시30분~오후5시
- ◇ 장소 : 한양대학교 ERICA 게스트하우스 3층
- ◇ 대상 : 창업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 ◇ 내용 : 창업기업을 위한 특강 및 현장 상담 진행
- ◇ 주최/주관 : 안산시 / (사)기술혁신협회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3982)

2019 안산음식문화제



- ◇ 안산 특산물을 소재로 한 전국테마 음식경연대회
2019.11.8.(금) 오전9시~오후3시
올림픽기념관 체육관
- ◇ 식품안전체험행사(음식문화 및 식품 안전 교육체험관 운영)
2019.11.9.(토) 오전10시~오후3시
안산호수공원 중앙광장
- ◇ 문의 : 안산시 위생정책과(031-481-2233)

I LOVE DAON

다운 영상 전국 공모전

- ◇ 기간 : 2019.10.28.(월)~11.22.(금)
- ◇ 분야 : 지역화폐 '안산사랑상품권 다운'을 주제로 하는 미발표 자유작
- ◇ 규격 : 25초 이상 3분 이내의 영상콘텐츠 (영화, 뮤직비디오, 광고 형식 등 자유)
- ◇ 방법 : 이메일 접수 (corea1219@korea.kr)
※ 제출서류 안내 및 신청서 양식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ansan.go.kr>.)
- ▶시정안내 ▶시정소식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 시상 : 총 200만원 7명(팀), '다운' 지류식상품권으로 지급

'안산 에너지 비전 2030' 심포지엄



- ◇ 일시 : 2019.11.5.(화) 오후2시
- ◇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 ◇ 대상 : 에너지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 ◇ 내용 : 안산시 지역에너지계획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패널토론 등
- ◇ 문의 : 안산시 녹색에너지과 (031-481-2812)

백운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 업무개시

- ◇ 이전 위치 :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31(원곡동 821-1)
- ◇ 업무개시일 : 2019.11.18.(월)
- ◇ 내용 : 백운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완공으로 인한 이전
- ◇ 문의 : 백운동행정복지센터(031-481-6606)

생생한 일자리 정보!

희망과 열정이 있는 취업마당! 안산시가 도와드립니다!

목요일에 희망 잡(Job)고(Go)

- ◇ 일시 : 2019.11.7.(목) 오후2시~4시
- ◇ 장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민원동2층)
- ◇ 주최/주관 : 안산시/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 내용 :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구인 정보와 면접 기회 제공,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구인업체에 인력 채용 기회 마련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센터(031-481-2931/2882)

안산99취업광장

- ◇ 일시 : 2019.11.19.(화) 오후2시~4시
- ◇ 장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민원동2층)
- ◇ 주최/주관 : 안산시 / 안산고용복지+센터
- ◇ 내용 : 구인·구직 현장면접에 의한 채용
-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센터 (031-481-2277/2919)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안산시는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2019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한다. 안산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이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금 선정이 되면 지역화폐(다운카드)로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한다. 4분기 신청 및 접수 대상은 94년 10월 2일생부터 95년 10월 1일생으로,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잡아바' 온라인 사이트(<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12월 20일 이후 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 문의 : 안산시 정책기획관(031-481-3093)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

소방안전 지켜주세요!

내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내가 먼저 안전을 실천하고 지켜요.

1 소방차가 지나가면 도로 가장자리로 붙어 양보해요!

2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주차는 절대 금물!

3 긴급차량의 현장도착 시간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보호에 큰 영향을 미쳐요!

신량 등화

마침 선선한 바람 불어 걸기 좋은 계절, 살방살방 책 속으로 가을 마실 나갑니다.

도서관이 새롭게 교체되었습니다. 한대앞역과 초지역에도 스마트도서관이 곧 찾아옵니다.

이용대상 안산시 도서관 회원증 소지자 (모바일회원증 가능)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02~04시 시스템정화 작업
대출반납 1인당 2권, 10일간 대출
대출한 스마트도서관 기기에 반납
반납연기, 예약도서, 상호대차 불가

문의: 481-2702 / 1544-6502-3 | 안산시 중앙도서관 | <http://lib.ansan.go.kr>